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예의 갖추고 배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움직이는 표지와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08

S-OIL MAGAZINE
AUGUST 2019
VOL. 453

S-OIL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 WORK EFFICIENCY

WORK & LIFE BALANCE

업무 지시는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한다.
직급별 순차 대면 보고보다 이메일을 통한 동시 보고를 적극 실행한다.
사전에 약속된 미팅 시간을 준수하고, 비정기 회의는 최소화 한다.

• OPENNESS

CREATIVITY

직원이 먼저 말하게 하고, 끝까지 경청한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적극 칭찬한다.
회의 시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보장한다.

• MUTUAL RESPECT

HORIZONTAL CULTURE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예의 갖추고 배려한다.
보고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뒤 보완을 요청한다.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 EMPOWERMENT

CULTIVATION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중간점검과 코칭을 통해 실행을 돕는다.
직원의 모든 보고에 발전적인 피드백을 보내준다.
직원의 직무순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변화하는 우리

04 핵심가치 히어로

[협력] 김창원 사우(감사1팀)

06 고전 속 핵심가치

[나눔] 관과지의
기꺼이 주는 것이 모두 얻는 것

08 우수 협력업체

- 와이앤유사이언스㈜
- ㈜형지엘리트

10 달리는 희망 주유소

에쓰대시클럽주유소

12 가족 추억공작소

최태수 사우(품질관리팀)

14 달콤한 퇴근길

[가족공예] 허인 사우(Alkylation1과)

16 함께하는 풍경

- 두바이·베트남 윤활유 엑스포 참가
- 싱가포르 윤활기유 고객 초청 행사
- 태화루 건립 5주년 후원 공연 관람
- 산악회 남해 금산 산행

22 두런두런 이야기방

- 강원도 무릉계곡 트레킹 후기
- 대곡박물관 관람기
- 울릉도 가족 여행기
- <복어는 복어독을 만들지 않는다> 독서 후기



AUGUST 2019

VOL.453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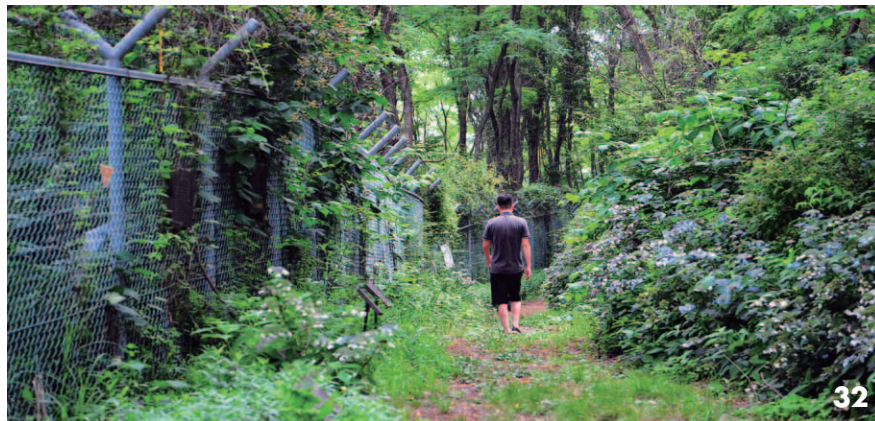


MUTUAL RESPECT HORIZONTAL CULTURE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예의 갖추고 배려

직장 내 욕설과 폭언,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사직 종용 등을 규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성숙한 조직문화는 기업 퇴보의 요인이 됩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3%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하는 조직의 다섯 가지 질문>의 저자 신경수 HR컨설턴트는 '배려'를 성장하는 조직의 원동력으로 꼽고 얼굴 보며 말하기,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품을 것 등을 강조합니다.



함께 보는 세상

28 꽃청춘 수학여행

8박9일 신들의 도시
[터키 역사기행]

32 마을숲을 걷다

아픔과 희망 공존하는 미지의 땅
[철원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36 성장달력

초연결 시대의 절대조건
[포용력]

38 취미탐구생활

[지식투자형] 취미 정보

40 이달의 활력평가

8월 탐구역역 [한여름]

42 캔버스 연구실

금박 실험 &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



성장의 S-OIL

44 주요 경영활동

- 2019 대한민국 회계대상 대상 수상
-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지원

46 단신

- 임직원 자녀 비전투어
- 스마일투게더 캠페인 연계 웹드라마 <사회인> 방영
-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7080 추억의 고고장>

47 햇살나눔

-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캠프 후기
- HYC공장봉사단 복지관 어르신 동반 레크리에이션

49 임직원 동정

50 독자마당

신뢰로 사는 협력 가치

[협력] 부문 표창자

김창원 사우(감사1팀)



주요 공적

- ▶ 주주 감사인의 방대한 요청 자료 조율을 통해 현업부서 업무부담 경감
- ▶ 감사진행 현황을 수시 보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처에 기여
- ▶ 주주 감사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활동으로 감사인과 협업부서 간 갈등 방지

양방향 업무 조율로 주주 감사 지원

김창원 사우는 2017년과 2018년 주주 감사 코디네이터로서 현업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주 감사에 신속하게 대응한 공적으로 핵심가치 CEO 표창 협력 부문에 선정됐다. 비 정기적인 주주 감사는 사전 자료 준비와 현장 감사를 포함해 지난 2017년과 2018년 하반기 두 달여 동안 진행됐다.

“2017년 처음 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주주 감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현업부서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집중했기에 더욱 그랬죠. 제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업부서에 업무가 가중되고 불필요한 자료가 뒤섞이는 일로 시간 지연이 되곤 했습니다. 양쪽에서 불만 섞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핵심사항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대주주 감사인들이 외국인이라 당연히 자료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현업부서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게다가 주주 감사 자료는 한 줄로 짧게 요약해 요청하는데 그 범위



가 상당히 넓다. 김창원 사우는 ‘어느 기간의 자료입니까? 어떤 내용을 포함해 제출하면 됩니까?’ 등 범위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조율하는 데 집중했다. 현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 논리와 증빙 자료를 제공해 불합리한 권고 사항을 방지했다. 그렇게 대주주 입장에서 검토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고, 현업부서에서도 핵심사항에 집중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능동적 업무로 협력 토대 마련

김창원 사우는 현장 주주 감사를 앞두고 한 달여 전부터 사전 제출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정확성을 높였다. 자료 누락은 없는지, 주요 사항에 오류나 오타는 없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현업부서에 대한 업무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감사 담당자는 각 부서의 업무를 폭넓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서 업무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득한 업무 이해를 기초로 피감사 부서와 소통과 협력이 좀 더 긴밀히 이뤄지도록 가능합니다. 해명할 부분은 무엇이고 어떠한 자료로 설명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하고 고민하며 감사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주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죠.”

60가지가 넘는 사전 제출 자료와 그 이상의 요청이 들어오는 현장 감사까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원활한 업무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볼 듯 뻔하다. 김 사우는 시급성과 연관 부서 범위 등을 고려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업무가 분산되지 않도록 집중했다. 또한 제출 자료의 범위를 꼭 필요한 자료로 한정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실례로, 탱크 화재 시에 주변 건물을 보호하는 시설 검토와 설치에 관한 주주 감사인의 권고 사항이 있었다. 김 사우는 현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위험분석에 대한 기본 자료 외에 후속 조치가 별도로 취해진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감사인의 오해는 풀렸고 잠재적 이슈는 제외됐다. 불합리하거나 부정확한 권고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김 사우의 노력은 계속됐다. 감사 진행 현황을 일·주간 단위로 상세하게 보고해 즉각적으로 현안에 대처했다.

함께이기에 가능한 성과

“다른 세 명의 코디네이터와 함께이기에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상을 받았지만 한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력의 가치 실현’이라 믿습니다. 코디네이터 사이의 협력은 물론 여러 부서 간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보다는 타 부서들의 지원과 협력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원 사우는 여러 사람의 의사가 양방향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덧붙인다. 그의 말처럼 코디네이터는 단순히 정보 전달의 연결고리가 아닌 관련 종사자 모두에게 신뢰감을 줘야 한다. 그래야 통로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사우는 앞으로도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기본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협력의 가치를 더욱 발현하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신뢰는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특히 감사 업무에서 신뢰가 없으면 쉽게 갈등이 생겨납니다. 언제나 유연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난제이자 숙제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이 정답인 듯합니다.” 🌻



한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력의 가치 실현이라
믿습니다



灌瓜之義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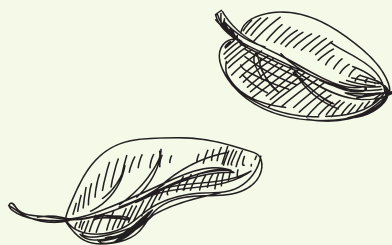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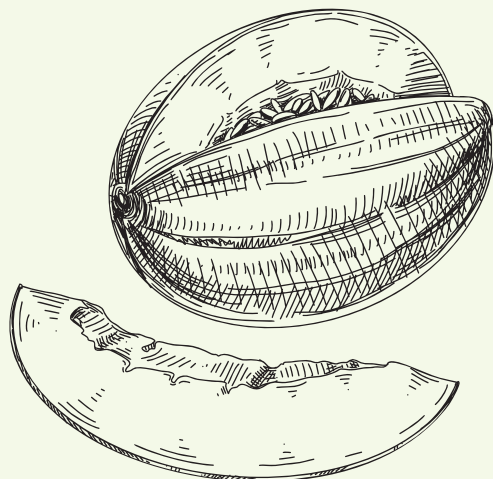
과

지

의

기꺼이 주는 것이

모두 얻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행동

“너 죽고 나 죽자”

상대와 강하게 맞서 싸울 때 쓰는 이 말은 사람의 비뚤어진 내면을 드러낸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뒤로 처지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무조건 남을 이기고 올라가려 한다. 내가 당하면 똑같이 응수하고,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준다. 결국 남는 것은 분노와 원망이며 이는 공생(共生)이 아닌 공멸(共滅)의 길로 치닫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고전을 살펴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 줄 때 서로가 잘 된다고 말한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가 되고 서로를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양나라와 초나라 농부 이야기는 악을 나눔으로 풀어갈 때 어떤 결말이 생기는지 잘 보여준다.

전국시대에 양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었다. 국경 접경 지역에 사는 두 나라 농부들은 모두 밭에서 참외를 길렀다. 수확할 시기를 맞아 양나라 농부들의 참외 밭에는 품질 좋은 참외가 주렁주렁 열렸다. 반면 초나라 농부들의 참외는 맛도 없고 품질도 형편이 없었다. 양나라 농부들은 참외밭을 부지런히 가꿨지만 초나라 농부들은 게을러 물을 제때 주지 않은 탓이었다. 그 사정을 모르는 초나라 농부들은 그저 질투심에 타올라 한밤중에 몰래 양나라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전부 짓밟아 버렸다. 다음날 현장을 찾은 양나라 농부들은 몹시 화가 났다. “우리도 초나라 참외밭을 밍개 버립시다.” 그때 마을의 현령이었던 송취가 나서며 달랬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둘 다 망할 뿐입니다.” 그리곤 농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이듬해 봄, 양쪽 농부들은 다시 참외를 심고 길렀다. 양나라 농부들은 여전히 부지런했고 초나라 농부들은 여전히 게을렀다. 수확철이 되자 초나라 농부들은 자신들의 참외밭에서

핵심가치
[나눔] 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참외밭에도 참외가 주렁주렁 열린 것이다. 들뜬 초나라 농부들은 혹여 이번엔 양나라 농부들이 자기들의 밭을 망가뜨릴까 걱정돼 밤에 몰래 참외밭을 지키기로 했다. 밤이 되자 예상대로 양나라 농부들이 초나라 참외밭으로 몰려왔다. 조금 더 지켜보던 초나라 농부들은 깜짝 놀랐다. 양나라 농부들이 초나라 참외밭에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있는 것이다. 송취가 지시했던 일은 정기적으로 초나라 참외밭에 가서 물도 주고 풀을 뽑아주는 일이었다. 그때서야 초나라 농부들은 왜 자신들의 참외밭에 품질 좋은 참외가 열렸는지 깨달았다.

초나라 농부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매우 부끄러워하며 곧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양나라 농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사연을 들은 초나라 현령은 초나라 왕에게 보고했고 초 왕은 양나라 왕에게 선물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결국 두 나라 농부들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게 됐고 두 나라도 더욱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이로부터 참외에 물을 주며 덕을 행하는 의로움이라는 뜻의 관과지의(灌瓜之義)라는 말이 생겨났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풍요

옛 사람들은 ‘재물은 공동의 것이므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다(財者人財也, 吾不可專也)’고 생각했다. 사람이 소유한 것은 다만 하늘로부터 빌린 것이라 여겼다. 이는 단지 재물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권력과 지위, 명예도 마찬가지다. 순전히 내 능력으로 지위와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기회 덕에 그 지위에 서고 권력을 갖게 됐다고 생각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넉넉하게 베풀 수 있었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 줄 줄 알았다.

조선 후기 야담집인 <해동야서>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죽음이 임박하자 “관 양옆에 구멍을 하나씩 뚫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고 지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산 값이 쌓인 재물을 두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하라”고 유언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들 죽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간다. 내 이웃과 사회가 없다면 애초에 재물을 쌓는 일조차 불가능하다. 내 덕과 공으로 인한 것이라는 착각 대신 이웃과 사회를 향해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재물을 쌓는다면 명예든 재물이든 나눌 만큼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베풀이 진정한 수성(守城)이다. 🌱



글: 박수밀

한양대 인문과학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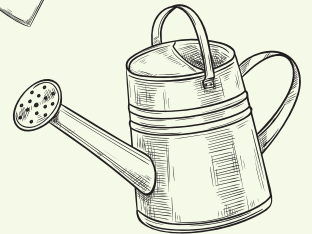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리더의 말공부>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옛 공부벌레들의 좌우명> 등

저서가 있다.



핵심가치 [나눔]을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관과지의 덕을 행하는 의로움



우리회사는 공급업체와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구매부문 선정 우수 협력업체 인증을 통해 혜택(benefit)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수 협력업체에는 인증서를 수여하며, 이들 명단을 전자구매시스템(e-Procurement System)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우수 협력업체 인증에 이름을 올린 총 9개 기업을 연중 지면에 순차로 소개한다.

01

[실험기기] 분야

와이앤유사이언스(주) Y&U Science

산업 특수성에 최적화한
기술 설비·협력

1976년 창립한 영인과학(주)에서 2010년 분사한 법인이다. 모기업 창립 당시 울산사무소로부터 시작된 협력관계는 분사 이후 현재까지 4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영인그룹 하위의 전국 거점 법인을 통해 실험실과 연구소의 다양한 분석 장비를 취급하며, 방사능 분석기, 이동형 장비 등 환경분석 장비로 사업 확장 일로를 걷고 있다. 이 가운데 와이앤유사이언스(주)는 울산지역 특수성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분석기를 주로 납품한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RUC-ODC프로젝트와 품질관리 분석 업무 관련한 총 24대의 장비를 납품했다. 유사 식별제 분석용 장비와 가스 분석기, 기타 소모품 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현업의 만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온산공장 실험 연구소 이전에 따른 분석실 구축 당시 와이앤유사이언스(주)는 1개월여 동안 공장 내 업무현장에 전 직원을 투입해 장비 이전과 재설치에 헌신했다.

66

온산공장 실험연구소 이전 설치 당시에는 우리의 상생협력이 가장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와이앤유사이언스(주)의 장비들로 채워진 분석실을 새 공간으로 옮기는 공정 현장에서 우리는 에쓰-오일이 굳건하게 지키는 안전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먼 미래의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99

와이앤유사이언스(주) 박영춘 CEO



6월

[촉매·화공약품] 인우코퍼레이션
[기계·장치] 준코퍼레이션

7월

[배관] 코리아인더스트리
[전기·계장] 지우시스텍

8월

[실험기기] 와이엔유사이언스
[기타자재] 형지엘리트

9월

[공사·정비용역] 포스코케미칼
[설계감리·공사관련용역] ABB코리아
[일반용역] 맥서브

02

[기타자재] 분야

(주)형지엘리트
Hyungji Elite탁월한 제품력으로
고객만족 견인

(주)형지엘리트는 199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제일합섬(주)에서 1997년 새한그룹의 (주)새한으로 탈바꿈한 뒤 2002년 의류사업부 분사에 따라 (주)엘리트베이직으로 연혁을 이어왔다. 이후 2013년 패션그룹형지에 편입되면서 2015년 현재 사명을 정했다. 학생복 브랜드 '엘리트'로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고 2016년 상해엘리트유한회사를 설립해 중국 교복 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여성 캐주얼, 명품 제화 등 브랜드로 패션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형지엘리트는 기업체 유니폼과 판촉물을 담당하는 B2B팀을 통해 우리 계열주유소·충전소의 주유원복을 납품했다. 아울러 쿨토시, 섰캡, 방한장갑 등을 포함한 총 13개 품목의 계절용품으로 고객만족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관여한다. 주유소·충전소의 특수한 여건을 자체의 기능성과 디자인 경쟁력으로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사전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전국 각 도시에 걸쳐 품평회를 시행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협력의 연을 맺었다. 

66

현장 품평회를 개최한 기억이 선명합니다. 영업 일선의 직원 분들과 주유소·충전소 대표자 분들의 진지한 자세로부터 에쓰-오일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호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에 기반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대 속에서 한층 내실 있는 협력업체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99

(주)형지엘리트
노길주 총괄본부장

미소 자아내는 존중의 원칙

에쓰대시클럽
주유소

에쓰대시클럽주유소에는 '반쪽 인사'가 없다. 주유 직원과 고객이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일상적이다. 상호 존중과
친절 그리고 규칙을 통해 모두가 미소 짓는 즐거운 주유소를 만들어간다.

왼쪽부터
김태준 주유원
최민원 대표
최주성 소장





에쓰대시클럽주유소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329
062-672-7485

셀프인 듯 셀프 아닌 친절 주유소

“에쓰-오일을 애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모임, 줄여서 에쓰클럽입니다.”

최민원 대표는 에쓰대시클럽주유소를 이렇게 소개한다. 우리회사와 고객이 주유소를 중심으로 친목의 장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이름이다. ‘에쓰-오일 챔피언스클럽 2019 우수상’ 간판과 ‘함께 인사해요’라고 쓰인 입간판을 당당히 내건 이곳에는 해사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스마일투게더 캠페인은 그동안 우리회사가 선도한 다양한 캠페인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주유업에 십여 년간 종사해오면서 제가 가장 중요시한 게 바로 친절과 존중이었거든요.”

최 대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웃음시다’, ‘우리 직원은 누군가의 귀한 아들, 아버지입니다’ 등 문구를 통해 고객과 주유 직원의 관계 질 개선에 앞장섰다. 노력의 결실일까. 에쓰대시클럽주유소에서는 오히려 고객이 먼저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는 경우도 많다.

셀프주유소지만 직원들은 고객을 방관하지 않는다. 주유가 서툰 고객을 위해 직접 주유를 돕는 것은 물론 언제,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할까



싶어 세심히 살핀다. 처음에는 셀프인 듯 셀프 아닌 주유소에 당황하던 고객들도 이제는 그 친절이 고맙고 정다워 계속 찾아온다.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에쓰대시클럽주유소 현장을 지켜온 최주성 소장은 “세심한 서비스가 고객의 발길을 이끄는 결정적인 한방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결같은 친절의 이유를 설명했다.

무조건 Yes는 ‘No’, 지킬 건 지킨다

에쓰대시클럽주유소는 한 달 평균 2천 드럼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주거단지 사이, 남구에서 북구로 넘어가는 길에 위치한 이곳은 지리적 특징 덕분에 이동차량이 많고 요일별 고객 편차가 크지 않다. 또한 이용 고객의 절반 이상이 단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매출의 요인에는 단순히 지리적 이점 외에도 고객과의 신뢰가 크게 작용한다. 고객과의 친밀도가 제아무리 높아도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의 대충 넘어가기란 없다.

“우리는 제품을 속이거나 편법·불법으로 이익 챙기기,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손해 입히기와 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운영 철칙으로 삼고 엄격히 준수합니다.”

최민원 대표와 주유소 직원들은 고객과의 약

속 이상으로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본다. 또한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기름이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기름을 수급한다. 우리회사 로고가 큼지막하게 쓰인 유조차가 드나드는 모습만으로도 ‘우리 기름은 믿고 쓸 수 있다’는 홍보를 하는 셈이다.

“기름의 양과 질을 보장할 뿐 아니라, 차량용품도 고품질 정품만 취급합니다. 우리회사 PB상품인 에탄올 워셔액도 판매하고 있는데 고객이 정품인지 꼭 집어 확인하거든요. 그만큼 좋은 제품을 판매한다는 신뢰가 아주 중요해요.” 지킬 것은 지킨다는 에쓰대시클럽주유소의 정직한 운영은 결국 고객과 주유소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린다. 



에쓰대시클럽주유소 성공 전략 3

1 지리적 이점과 한결같은 친절로 매출 안정화 시너지

주거단지가 조성돼 차량이동이 많은 지리적 이점을 기본으로, 변함없이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2 서로 인사하기

스마일투게더 캠페인과 함께 고객과 주유 직원 사이 친절과 존중을 꾸준히 강조한 덕분에 고객이 웃으며 인사하고 직원이 친절 서비스로 화답한다.

3 신념과 소신

고객과 자신을 속이는 비양심적 행동을 철저히 지양하며 주유소 고객들의 신뢰를 견인한다.





새 도전 앞둔

청춘에게

최태수 사우(품질관리팀) 가족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어리게만 보이던 아이들이 어느새
어른의 문턱에 선 모습을 본 부모는 묵묵히 첫 날갯짓을 지켜볼 뿐이다.
최태수 사우가 새로운 도전을 앞둔 두 자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스튜디오로 나섰다.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하는

멋진 청춘을 응원한다

왼쪽부터
아들 최찬빈 씨
아내 김소영 씨
최태수 사우
딸 최예빈 씨



판박이 가족의 특별한 하루

“오, 신기하다.”

전문가 손에 들린 전신 스캐너가 우뚝 서있는 최태수 사우를 훑기 시작하자 컴퓨터 모니터에 그의 모습이 3D로 구현된다. 딸 최예빈 양과 아들 최찬빈 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와 모니터를 번갈아 쳐다본다. 기기 이름이 뭔지, 미니어처 제작에 얼마나 걸리는지 등 궁금한 것도 참 많다. 미니어처 촬영으로 몸 풀기를 마친 최태수 사우 가족이 드디어 가족사진 촬영에 나섰다.

“부기를 쏙 빼고 최대한 예쁘게 나오려고 어제 저녁부터 우리 모두 금식했어요.”

아내 김소영 씨는 2년 전 리마인드 웨딩으로 찍었던 사진이 거실 벽에 걸려있으며 “이제 새 사진이 거실 풍경을 바꾸겠네요.”라고 기대감을 드러낸다.

최태수 사우는 군 입대를 앞둔 아들과 수험생인 딸에게 용기를 북돋고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카메라 앞에 가족 넷이 나란히 서로 보니, 딸은 엄마를, 아들은 아빠를 쏙 빼닮았다. 특히 아들 찬빈 씨는 친척들이 사진으로 보면 최태수 사우와 헛갈릴 정도로 아버지 판박이다. 흰색 상의에 청바지로 맞춰 입은 가족은 맨발인 채로 바닥에 편하게 앉았다.

“예빈아, 아빠 무릎에 앉아볼래?”

최태수 사우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한쪽 무릎을 치며 장난스레 딸을 부르자, 내내 웃기 없던 딸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진다. 어릴 땐 아빠 옆에 착 붙어있는 애교 많은 딸이었는데, 사춘기 무렵부터 부쩍 부녀 사이가 어색해졌다고 고백한다. 최태수 사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 딸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다. 예빈 씨도 살며시 아빠의 팔짱을 끼 호응한다.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할 아들에게

“네 입시 선물로 오빠가 군대 가주는 거야.”

찬빈 씨가 여동생 옆구리를 톡 치며 익살맞게 말을 건넨다. 잘 다녀오라며 짧은 한 마디로 응대하는 동생을 오빠는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오는 10월 군 입대를 앞둔 찬빈 씨는 현재 꾸준히 발목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 때 농구를 하다가 다친 뒤로 발목이 내내 말썽이다.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께 군대에 갈 수 있게 잘 치료 부탁한다고 당부하셨어요. 군대에 다녀와야 성숙해진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줄곧 들어서 저도 꼭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태수 사우는 군 생활이 만만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아들이 모조록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한 단계 성장하길 바란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있어요. 그 순간을 잘 견디면 힘든 과정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결실을 맺을 겁니다. 아들이 그것을 몸소 느꼈음 해요.”

최태수 사우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자, 아들은 그제야 입대가 실감나는 듯 굳게 약속한다.

“다치지 않고 몸 성히 다녀오겠습니다!”

성인이 될 꿈 많은 딸에게

또 다른 시작의 문 앞에 서있는 딸 예빈 씨는 현재 수험생이다. 수능이 100일가량 남은 시점이라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날이 많지만 오늘은 특별한 가족사진 촬영을 위해 과외도 잠시 미뤘다.

“우리 딸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야무져요.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거예요.”

엄마 김소영 씨는 딸을 자랑스레 바라보며 말한다. 한창 꿈 많은 나이인 딸은 대학생이 되면 가장 먼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단다.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아이가 아닌 자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군대와 입시라는 의미 있는 도전을 앞둔 두 자녀에게 최태수 사우와 아내 김소영 씨는 해주 고픈 조연과 격려가 참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인내’다.

“잘 풀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참 많은 게 인생이죠. 의지만큼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포기만 하지 않았으면 해요. 아이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점입니다.”

부모 품을 벗어나 동지를 떠나는 아기 새를 바라보듯, 최태수 사우 부부는 자녀들의 세상을 향한 첫 날갯짓을 응원한다. 🌻

집중과 집요함의

시간

가족공예

글. 허인(Alkylaton1과)
사진. 디자인소호

일상을 갈고닦는 무두질

무엇이든 손으로 만들어내는 게 좋다. 목공 일 하시던 아버지의 영향일 것이다. 남들과 나누길 좋아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그런 연유로 한식조리사자격증도 거뜬히 취득했던 것 같다. 성심을 다한 요리 한 접시를 여러 사람 앞에 내놓는다. 아내가, 아이들이,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만족했다. 돌이켜보니 가족공예는 정해진 수순이었나 싶다. 여태껏 만든 완성품들 중에 나만을 위한 게 딱히 없다.

배울 거리로 문득 정한 종목이 가족공예다. 탐색하는 데 공을 들였다. '가족공예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약 6개월을 보냈다. 인터넷 서핑에 꼬박 시간을 쓰고 알음알음 공방들을 찾아다녔다. 예상과 달리 토양이 척박했다. 욕심을 채울 만큼 집약된 정보는 없었다. 공방만 몇 차례 기웃거리다 관둘 마음이 아니었기에 내실 있는 지식에 더 목이 말랐다. 산재한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집고 더해 마침내 2013년 8월, 공방에 입문했다.

가족은 무두질에 크게 좌우된다. 무두질이란 동물 원피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과 기름, 잔털 등 기타 성분을 말끔히 없애고 섬유 조직을 안정화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베지터블 가죽 또는 크롬 가죽이 된다. 베지터블 가죽은 나무껍질에서 전통방식으로 얻은 타닌 성분을 통해 가공한 것이다.





가죽공예 정보상자



STUDIO

라온아토 가죽공방

기초반부터 심화반까지 수준별 맞춤 수업을 제공하는
울산 내 공방이다. 원데이클래스도 함께 운영해
정식 수강 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다.
https://blog.naver.com/raon_ato_atelier
주소 울산시 중구 우정7길 4

BOOK

<가죽공예 베이직>

종류별 가죽 설명과 관리 방법, 필요한 도구와 사용 정보,
실제 가죽공예 과정 등 가죽공예 입문서답게 필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았다.

<핸드메이드 가죽공예>

독학으로 통가죽 작품 만들기예 유용한 안내서다.
가죽공예 기본 지식은 물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QR코드)을 제공한다. 만들기 도안도
꼼꼼히 수록했다.

거칠고 투박해 가죽 본연의 느낌이 충만하다. 자연광에 자연스럽게 태닝(tanning)이 진행된다. 이에 비해 크롬 가죽은 여러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탄생한다. 매끈하게 가공돼 흠집이 보이지 않는다. 악어, 타조 등과 같은 다양한 질감을 짧은 시간에 대량생산할 수 있다.

소박하고도 큰 미래 일상의 꿈

집 주변에 공방이 두 곳 있었다. 그중 하나를 정하고 도구를 갖췄다. 가죽칼, 크리저, 롤러, 디바이더, 다이아몬드치출, 고무망치, 송곳, 펀치, 본드, 본드주걱, 초실 등이다. 요즘은 입문자를 위한 공구 키트가 있어 간편하다. 가죽은 구하는 것부터 전문가 도움이 절실하다. 초심자는 가죽의 질을 헤아리는 식견이 부족할 뿐더러 직접 보고 만지며 택할 수 있는 가죽 구입처가 흔치 않다. 선생님이 구해다 주시는 가죽을 소중히 받고, 의욕에 가속이 붙는 시점쯤 잘 짜인 인터넷 쇼핑 경로로 손수 가죽을 주문해 볼 만하다. 이후부터는 집중력 싸움이다. 일천한 시기부터 1년여를 꼬박 공방에 의지했다. 단계별 프로그램에 성실히 따르며 기본기를 닦았다. 집에는 공구와 재료들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교대근무를 마치고 6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운동까지 끝내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가죽을 만질수록 몰입은 깊었다. 6년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게 느껴진다. 그 사이 공방과는 작별하고 새 선생님을 찾아 나섰다. 더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서다. 이쯤이면 됐을까, 싶은 순간 다시 부족함을 느낀다. 생활의 일부로서 가죽을 만지면서 전문가 조언을 구해 기술력을 높여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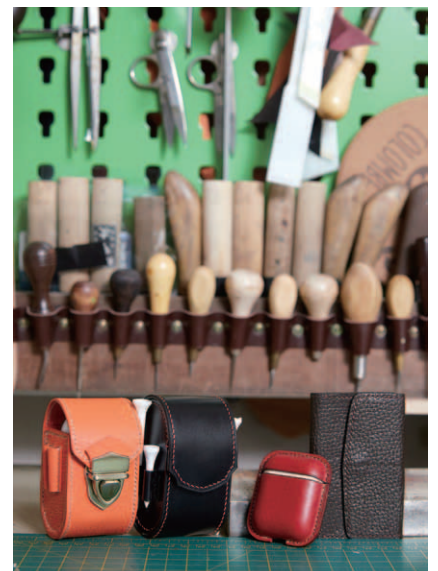
완성품을 모아보면 대체로 아내가 들 만한 가방이다. 가죽가방 만드는 데는 도안이 중요하다. 건축에서 설계도와 같다. 대표적인 가방 도안은 10여 개다. 이를 기초로 마감이 훌륭한 가방을 구현할 수준에 오르면 그다음은 독창성 영역이다. 각 도안에 아이디어를 조금씩 가미해 본다. 작은 지갑에서 출발해 어느덧 기본 도안들을 섭렵하고 창의의 길로 들어서는 중이다.

가죽공예 덕분에 내면의 조급함을 깨달았다. 기만하지 못한 후배의 모습에 답답해하고, 때로 다그치기도 했었다. 그런데 급한 마음은 가죽에 그대로 서렸다. 조금이라도 서두르면 꼭 실수한다. 힘들게 가방을 완성하고도 결점이 남았다. 사소한 과정도 건너뛰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제대로 거쳐야 한다. 그렇게 가죽을 길들이고자 하는 사이 가죽에 차분히 길들었다.

가죽공예로 퇴직 이후 소박한 삶을 생각한다. 작은 공방을 꾸려 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상상이다. 최근 군 입대한 큰아들과 대학생활 끝뚝한 작은아들 또래일 것이다. 젊음은 거칠고 불안하지만 요행 없이 찬찬히 전진할 때 결과도 흡족하리라는 지혜를 전하고 싶다. 따뜻한 가죽을 함께 만지면서 인생 선배로서 고민을 들어줄 수 있다면 더한 보람이 없을 것이다. 🌻

가죽공예 덕분에
내면의 조급함을 깨달았다

사소한 과정도
건너뛰지 말고
제대로 거쳐야 한다



정교한 시장 속 무한질주

두바이·베트남 윤활유 엑스포 참가

글. 신현오·이길웅(윤활유사업팀)



글로벌 잠재 고객과의 만남

우리 윤활유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다. 이미 포진한 시장을 뛰어넘어 윤활유 사업 확대를 위해 윤활유사업팀리더 이하 모든 직원은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두바이와 베트남에서 우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열렸다. UAE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otomechanika Dubai 2019)와 베트남 하노이 오토 전시회(VIETNAM AUTO EXPO 2019)가 그것이다. 각각 6월 9~13일과 6월 12~15일 사이 전시기간 중 우리는 일주일을 택해 2개 팀을 짜서 현지로 날아갔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각오도 단단히 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베트남 전시회는 해마다 6월에 하노이에서 열리는 최대 자동차 관련 행사다. 베트남 산업부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에는 15개국에서 152개 업체가 참가했다. 자동차를 비롯해 모터사이클, 스쿠터, 자전거, 차량 부품 등이 전시장에 집결하고, 야외에 상용차와 특장차가 전시돼 3만5천여 관람객을 맞이했다.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도 열려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이번 베트남 전시회에 참가한 윤활유 업체는 우리회사와 모빌(Mobil) 2개사였다. 한편 한국 기업은 18개사 참여로 평이한 수준이었었는데 뛰어난 기술력에 힘입어 결코 적지 않은 관람객이 국내 업체들의 부스를 찾았다. 우리 회사의 경우 현지 대리점을 통해 부스를 마련하고 우리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판촉활동을 지원했다. 베트남이라는 주요 시장에서 우리 윤활유 사업이 한층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품 홍보와 함께 잠재 고객과 회의를 적극 주도했다.

이번 전시는 우리 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의 특징과 성장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베트남 지역은 폭발적인 성장력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특히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베트남 시장 내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이에 우리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베트남의 자동차 회사, 트럭 회사 등 잠재된 B2B 거래처들을 방문해 'S-OIL 7'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미리보는 중동·아프리카 시장

두바이 전시회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최대 규모로 꼽히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다. 대형 전시 기업인 메세 프랑크푸르트(Messe Frankfurt) 주관 하에 오토메커니카라는 브랜드로 지난 17년 동안 독일·인도·중국·미국·멕시코 등 전 세계 17개 도시에서 차례로 개최돼 왔다. 현장에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부품 기업을 비롯한 마케팅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결집한다. 여기에 우리회사는 올해로 5년 연속 참가했다. 중동·아프리카는 우리 윤활유 전체 판매물량의 10% 이상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지속성장성이 크게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올해 전시에는 전 세계 43개국 약 2천 업체



가 참가했다. 약 3만 명 관람객이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 차려진 전시관을 찾았다. 전 시장은 크게 6개 품목군에 따른 전시관과 이벤트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국내 경쟁사를 포함해 전 세계 윤활유 시장의 주요 경쟁사들이 전시에 대거 참가했다. 유럽·미국·아랍에미리트의 윤활유 대리점 다수가 참여하고 윤활유 전용관 이외에 국가별 전용관 사이에도 윤활유 업체가 부스를 개설해 치열한 시장 경쟁을 반영했다. 한편 이벤트 홀에서는 중동 자동차 애프터 시장에 대한 전망, 전문가 교육 세션, 주최사 공식 파트너의 세미나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우리는 현장에서 브랜드 홍보와 더불어 현지 배급사와 대면 회의를 열어 시장 파악에 주력했다.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오만,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의 주요 배급사 관

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국가에 우리 제품 판매망을 개척하기 위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상담했다. 후속으로 추진할 과제들도 도출됐다. 신규 패키지 변경을 전후한 충분한 홍보, 현지 고객 대상 기술 세미나 개최, 무역 규제와 관세 동향에 따른 지원, 중장기 판매물량의 전략적 조정,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적용 등 정교한 실행방안을 수립했다. 🌱





확고한 브랜드 성공 여정

싱가포르 윤활기유 고객 초청 행사

글. 한아름(기유마케팅팀)



우리회사가 6월 25일 싱가포르 신포니아 레스토랑(Sinfonia Ristorante)에서 리셉션(S-OIL Reception for Aramco Base Oil 2019)을 열고 고객과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을 초청했다. 이 리셉션은 석유화학 국제 정보제공 업체 ICIS 주최로 아시아지역 최대 윤활기유·윤활유 콘퍼런스(The 13th ICIS Asian Base Oil & Lubricants Conference)가 진행 중인 6월 25~27일 중에 개최돼 윤활기유 시장을 이끄는 콘퍼런스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올해 행사는 아람코 윤활기유 연합(Aramco Base Oils Alliance, 이하 기유 연합)의 공식 출범 이후 처음 싱가포르 현지에서 아시아지역 고객과 만나는 자리이기에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앞서 사우디아람코와 우리회사를 비롯한 아람코 산하 윤활기유 자회사인 모티브(Motiva)·루브레프(Luberef) 3사는 진중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연합에 관한 합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21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아람코 윤활기유 리셉션을 통해 기유 연합의 공식 출범 소식을 대외에 알린 바 있다.

이번 리셉션에서 배중호 전무와 강기태 전무를 비롯한 우리 임직원은 고객들을 환대하고, 세계적으로 확고한 인지도를 지닌 아람코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고객관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고급 윤활기유 시장에서 차지해온 우리의 선도적인 위상과 더불어 기유 연합 출범을 계기로 시장 확대를 향한 경쟁력이 한층 제고된 점을 알리며 사업 협력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했다. 아울러 신규 고객 개발을 목표로 한 최신 시장 동향을 공유하면서 깊은 신뢰를 다졌다. 🌱



염원 담은 역사 동행

태화루 건립 5주년 후원 공연 관람

글. 이원정(대외업무팀)

울산 태화루가 올해로 재건 5주년을 맞았다. 우리회사는 2011년 당시 태화루 재건을 위해 건립비 100억 원을 전액 기부했다. 영남 3루 가운데 하나인 태화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돼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던 터였다. 울산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시민으로서 시민들의 염원에 뜻을 보탠 결과 역사에 남을 태화강변 풍경이 바뀌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기리는 <태화루 예술콘서트-풍류>가 6월 28일 태화루에서 개최됐다. 우리회사 창립기념일에 맞춘 날짜다. 이 자리에서 우리회사는 (사)한국예총울산광역시 연합회에 기부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행사 현장은 시민과 관계자 등 관객 800여 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종해 시인이 시 '태화루에 올라'를 낭송하고, 예술인들은 태화루를 배경으로 태평무, 부채춤 등 전통 군무를 펼쳤다. 국악연주단의 연주와 국악가요도 흥겹게 울려 퍼졌다. 한국예술평화 전통복식 분야의 문근남 명인이 고증한 한복 패션쇼는 태화루에 꼭 맞춘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었다. TV조선 채널의 <미스트롯> 출연 이후 흥행몰이 중인 울산 출신 가수 홍자가 축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제 태화루는 울산시민의 쉼터이자 울산의 문화예술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명물이 됐다. 태화루를 둘러싼 태화강이 대한민국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 더욱 그러하다. 7월 11일의 일이다.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두 번째다.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정원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회사가 함께하는 태화루는 태화강과 더불어 시민들의 애정 속에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



시원한 빗속 여름 추억

산악회 남해 금산 산행

글. 피준호(탈황1과)

이열치열 금산 등반

올해 봄 황매산의 추억을 되새기며 우리 산악회는 2분기 산행을 계획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돌아오기 전에 날짜를 잡기로 결정한 뒤 일명 이열치열 남해 금산 등반을 준비했다. 1분기 때 호응이 좋아 참가 모집 메일을 보낸 지 이틀 만에 20명 지원자가 훌쩍 넘었다. 최종명단 35명을 확정하고 황매산 산행 때와 같이 2개 코스로 나눠 일정을 짰다.

산행 당일인 7월 13일 아침, 회원들을 태우고 남해 금산으로 향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의 유일한 산악공원인 금산은 기암괴석들로 뒤덮인 명산이다. 울창한 숲과 눈 아래로 보이는 바다의 절묘한 조화는 가히 국내 최고라 손꼽을 만하다. 명산을 오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나선 회원들은 짧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출발하고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남해에 예약해 둔 식당에 전화해보니 그곳 역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긴급히 회장단과 의견을 나누고 산행코스를 상황에 따라 바꾸기로 결정했다.





함께여서 풍성한 감동

울산에서 3시간을 달려 두모계곡 입구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단체사진을 찍으며 산행 의지를 다졌다. A·B코스 나누어 산행을 시작했다. A코스는 두모계곡 입구에서 금산정산을 탈환하고 보리암을 거쳐 종착지인 금방탕방지원센터로 오는 코스, B코스는 금방탕방지원센터에서 보리암에 갔다 다시 종착지로 오는 코스다. 하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B코스는 북곡탐방주차장에서 정상을 갔다가 보리암을 보고 다시 관광버스로 돌아와 식사장으로 향하는 코스로 수정했다.

B코스에 합류해 관광버스와 셔틀버스로 북곡2주차장까지 이동 한 뒤 20분을 걸어 금산정상을 탈환했다. 멋진 절경을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은 우리는 준비해온 과일과 채소로 갈증을 달래며 감상을 나눴다. 정상에서 30여 분 머문 뒤 10분 정도 이동해 보리암에 도착했다. 비단 두른 듯한 바위 위에 고즈넉히 자리한 암자다. 개인적 휴식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평온히 다스렸다.

B코스 회원들이 짧은 산행을 마치고 종착지인 식당으로 향할 즈음 A코스 회원들 한두 명이 정상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두 시간여 동안 비를 맞아서인지 옷이 흠뻑 젖어있었다.

코스는 달랐지만 산행으로 얻은 기운과 감동은 동일했다. A코스 회원들까지 모두 식당으로 집합하면서 본격적인 뒤풀이가 시작됐다. 서로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정성스레 차려진 식사를 함께 나눴다.

돌아오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일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산행의 흥과 여운을 만끽했다. 이번 산행은 7팀 정도가 부부동반으로 참여해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울산에 저녁식사 장소까지 예약했다는 말에 아내들은 충무단의 배려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 산행의 추억을 벗 삼아 이야기를 나눈 우리는 2019년 두 번째 산행을 아쉬움 속에 마무리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회장단의 부족한 부분에도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산행 계획부터 모집, 일정 추진에 이르기까지 큰 힘이 돼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 🌿



여유 가득 청량한 감동

강원도 무릉계곡 트레킹 후기

글. 이용현(네트워크강화팀)

과정이 즐거운 도보여행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오랜 시간 즐겨온 야구와 자전거 때문인지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등산보다는 가볍게 도보할 수 있는 트레킹을 선호하게 됐다. 물론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목표를 정복하지 않아도 야트막한 산을 오르거나 느리게 걷는 과정을 통해서도 더없는 평온함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음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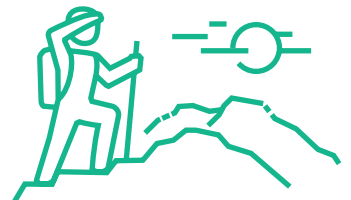
지난 6월말 다녀온 강원도 무릉계곡 트레킹이 그렇다. 먼지로 희뿌연 도시를 떠나 푸른 자연 속에서 만난 시원한 바람과 물줄기, 다양한 새소리와 다람쥐 같은 숲속 동물들이 트레킹의 동반자가 됐다. 동해시 무릉계곡에서 용추폭포까지는 6km 정도로 누구나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코스다. 예전에 가족들과 여행을 왔다가 입구에서 발길을 돌린 적이 있어 언젠가 꼭 가봐야겠다 생각한 그 길이다.

무릉계곡 입구에는 호랑이가 빠져 죽었다는 호암소가 있는데 계곡 아랫단임에도 그 깊이를 보면 무릉계곡이 얼마나 웅장한지 짐작할 수 있다. 1천 명이 앉을 정도로 넓은 기암바위도 우직하게 자리해 있다. 이곳에 앉아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조선시대 풍속화가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들어 관동지방의 해산 승경을 60폭의 진경산수 화첩으로



담았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니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떠난 듯했다.

무릉계곡을 지나면 바로 삼화사가 나온다. 삼화사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건국과정에서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고 고려 성향의 세력을 포용하기 위해 설행한 역사적인 절이다. 그밖에도 임진왜란, 의병활동, 6.25 때 두타산성과 무릉계곡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민심을 달래왔다. 그래서인지 중생을 보살피고 해탈에 이르게 하기 위해 삼화사 입구에 모셔져 있는 12지신상의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온다. 삼화사에 얹힌 역사를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삼림욕이 시작되는 용추폭포까지 걸음을 이어갔다.





여름 비켜간 쌍폭포·용추폭포

터널처럼 우거진 100년 이상 된 천연림은 걷는 내내 피톤치드로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여름이 무색하게 가슴 깊은 곳까지 청량한 공기가 스며들어왔다. 계곡 물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자연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40분쯤을 걸으니 엄청난 물줄기 소리가 들려왔다. 심상치 않다. 바로 쌍폭포다. 정말이지 태어나 이런 멋진 폭포는 처음 본 듯하다. 쌍폭포의 왼쪽은 두타산 박달계곡에서 시작된 물이 바위 층층이 부서져 만들어졌고, 오른쪽은 청옥산에서 흘러온 물이 만나 두개의 폭포가 하나의 소로 떨어지는 멋진 장관을 이룬다. 쌍폭포 바로 위에는 용이 꿈틀대며 승천한다는 용추폭포가 있는데

소가 얼마나 깊은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여름에서 비켜간 듯 신비한 트레킹을 경험한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자연이 주는 멋진 풍경과 감동도 여전히 생생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도 기억에 남는다.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여행을 왔다는 모자지간, 평생 쌍폭포를 보고 싶어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려왔다는 70대 노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며 트레킹 여행을 추억했다. 올 여름이 끝나기 전, 역사와 숲 힐링이 살아 숨 쉬는 무릉계곡으로 다시 한번 떠나고 싶다. 🌿





태화강 백리길 유랑

대곡박물관 관람기

글. 이상구(환경관리팀)



도심 밖 다른 시공간

휴일을 맞아 모처럼 의미 있는 문화생활을 찾던 중 불현듯 <태화강 100리 길에서 만난 울산 역사>라는 기획전시가 떠올랐다. 언젠가 현수막을 본 뒤 한 번쯤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메모해 둔 전시다.

전시를 보기 위해 7월 7일 대곡박물관으로 향했다.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위치한 이곳은 울산시민의상수원 기능을 하는 대곡댐 인근에 자리해있다. 대곡댐 부지 발굴조사 당시 옛 고분군을 비롯해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출토된 것을 계기로 2009년 개관했다. <태화강 100리 길에서 만난 울산 역사>는 대곡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 기획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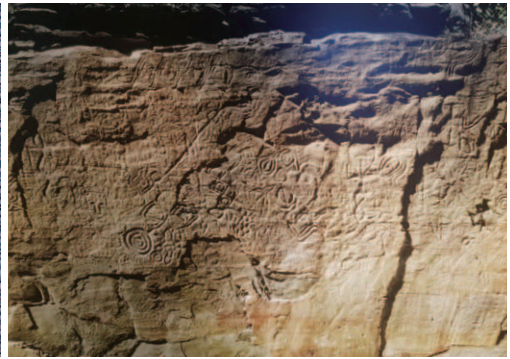
울산 연양에서 경주 방향으로 가는 35번국도 중간에서 시골길로 2km가량 더 들어가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대곡박물관은 도심에서 다소 거리가 있지만 짧은 휴일 부담 없이

여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산과 농촌 마을로 둘러싸인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서 한가로이 전시장을 둘러봤다.

태화강 따라 만나는 선조의 숨결

태화강은 울산 백운산 탑골샘을 발원지로 47km를 흘러 동해 앞바다까지 흐른다. 울산의 젖줄로서 그 가치가 남다른 만큼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태화강 100리길과 관련된 인물, 문화, 역사에 대해 소개한다.

대곡박물관이 위치한 태화강 상류지역에는 우리나라 선사시대 대표적 암각화 유적인 천전리 각석(국보 제147호)과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가 있다. 울산에서 최초로 국보로 지정된 천전리 각석은 선사시대부터 신라 말까지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그림과 글씨가 새겨진 바위다. 천전리 각석 건너편에는 넓은 바위 위에 131개의 초식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다. 반구대 암각화 역시



신석기 말부터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육식 동물과 고래, 사람 등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림 200여 점이 새겨져 있다.

대곡박물관이 위치한 두동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1900년대 초까지 경주에 속할 정도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많은 신라시대 유물이 발굴됐다. 10년 전 대곡댐 건설을 위한 주변 지역 발굴조사에서는 무려 1만 3천여 점의 삼국시대 유물이 나올 만큼 이 지역은 신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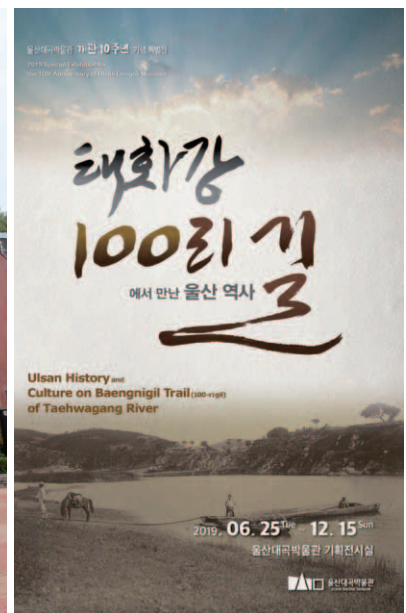
태화강은 구석기~청동기 시대의 다양한 유물이 발굴된 입암리(현재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인근) 유적을 거쳐 하류 지역인 울산 중구 반구동 유적지까지 흐른다. 태화강을 따라 삼국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건축 자재와 해안 방어를 위한 목책, 망루 등 많은 유물이

발견됐다.

고려시대 포은 정몽주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 등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도 태화강 인근에서 저술활동을 하거나 태화강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남겼으며, 태화강 하류 강변에 있는 도산성(지금의 학성공원) 일대는 임진왜란 당시(1597~1598년) 조선, 명나라 연합군과 왜군의 큰 전투가 벌어진 역사적 현장이었음을 새롭게 발견했다. 우리나라 큰 물줄기인 한강, 낙동강과 견주기에 작은 규모지만 태화강 굽이굽이에는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와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 그리고 유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언젠가는 태화강 물줄기를 따라 100리 길을 걸으며 옛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되짚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과거의 지혜를 교

훈 삼아 내일을 준비해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일 듯싶다. <태화강 100리 길에서 만난 울산 역사>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되니 기회가 된다면 꼭 둘러보길 권한다. 🌿



추억은 방울방울

울릉도 가족 여행기

글. 방경운(환경관리팀)



초여름 모처럼 연휴를 얻어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계획했다. 목적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울릉도와 독도다. 배 승선권은 미리 구입했지만 출발일 직전에야 딸에게 2박 3일 여행을 떠난다고 통보했다. 하필 시험기간에 웬 여행이냐는 딸의 핀잔을 듣긴 했지만 우리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짐을 꾸렸다.

6월 6일 아침 8시, 울산에서 출발해 1시간 정도 걸려 포항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울릉도 입도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우리는 9시 50분에 출발해 3시간 30분가량 걸려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했다. 먼저 울릉도 전경을 조망하기 위해 가까운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종잡을 수 없는 섬 날씨로 인해 독도는커녕 바다조차 잘 보이지 않았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거북바위를 보러 가던 찰나, 독도 여객선사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날 독도 들어가는 배편이 강우와 풍랑 주의보로 취소됐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독도에서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해 울산에서부터 왔는데 울릉도에 들어오는 배까지도 모두 취소됐다고 하니 꿈쩍없이 울릉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얹어진 김에 쉬어가자는 생각으로



한가로이 울릉도 산책에 나섰다. 촛대바위가 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두 시간이 훌쩍 지났다. 창밖으로 비 내리는 바다 풍경이 제법 운치 있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다음날 오후 3시 50분 울릉도 출발 여객선이 오후 5시로 연착됐다는 내용이었다. 집에 가는 것도 녹록지 않았다.

마지막 날, 날씨는 거짓말처럼 쾌청했다. 곳은 날씨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울릉도는 멋진 인생사진 가득 선사했다. 떠나기

전 관음도를 둘러 맑은 울릉도 바다와 바람을 마음에 가득 담았다. 의도하지 않게 관광 대신 울릉도 별미를 실컷 즐기다 온 식도락 여행이 됐지만, 이 또한 색다른 추억으로 남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디든 빛나는 순간, 특별한 여행지가 된다.



독하게 흥미로운 독 이야기

<복어는 복어독을 만들지 않는다> 독서 후기

글. 전부순(광고팀)



66

복어독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주성분인데
이것은 뱀독이나 벌독 등과 달리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항혈청
곤 해독제를 만들 수가 없다. (중략)
중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치사량을 넘어섰을 경우라면
대부분 8~10시간 이내에 죽는다.

- 48쪽

99



금지된 욕망의 미식(美食)을 복어와 복어독(毒) 이야기로 풀어낸 전문 교양서에 모처럼 흥미롭게 빠져들었다. 제목 그대로 복어는 정말 스스로 독을 만들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책장을 펼쳤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복어의 독은 세균이 만들어낸다.

복송의 시인 소동파는 복어를 두고 '죽음과 바꿀만한 맛'이라는 말을 남겼다. 반면 조선 실학자 정약용은 '젓가락도 대기 전에 소름부터 돋는다'며 멀리 했다. 복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일본조차 3백여 년간 공식적으로 복어를 먹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출정을 앞두고 군사들이 복어를 먹고 죽는 일이 빈번해지자 복어 금식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어는 오래 전부터 귀중한 식량자원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맹독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강하게 각인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복어에 대한 책

은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실용서가 대부분으로 전문 교양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내 최초로 발간된 <복어는 복어독을 만들지 않는다>란 책이 더없이 반가운 이유다. 이 책을 통해 자연과학·인문학적 측면에서 복어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정보와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상식을 얻을 수 있었다.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복어독은 복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표범무늬 낙지, 화살벌레, 캘리포니아도롱뇽 등 다양한 생물도 같은 성질의 독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복어는 스스로 복어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장내세균과 해저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을 잡아먹으며 독을 농축한다. 따라서 바닥과 거리를 둔 가두리에서 양식한 복어에는 복어독이 없다. 세 번째, 복어독에는 해독제가 없다. 복어독의 분자량이 너무 작아 아직까지 해독제가 개발되지 못했다. 복

어독에 중독되면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이노제 투여 등 대처요법밖에 방법이 없다. 일본 도쿄대에서 해양독물학을 전공한 저자의 남다른 이력이 말해주듯 다양한 복어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호기심과 지적 욕구를 채워준다. 독 이야기 외에도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 복어들, 복어와 궁합이 맞지 않는 먹거리 등 54가지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지루할 틈 없이 펼쳐진다. 🌿

신들의 도시

터키 역사기행

글·사진. 두경아(여행작가)

동서양의 길목에 자리한 터키에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유적이 놀랄 만큼
많다. 기원전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
아래 헬레니즘 문화를 꽃 피웠고,
이후 동로마제국(비잔틴제국)의
중심이었으니 그 시대 영화로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 당연하다. 특히
터키 서부, 그리스와 에게해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이
산재해있다. 터키 제3의 도시
이즈미르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터키 고대
그리스·로마 유적지가 있는 도시를
돌아본다.



1월 1박3일 홍콩 딤섬수업	2월 2박3일 일본 미술렐 탐방	3월 3박4일 베트남 크루즈 여행	4월 4박5일 태국 요리수업	5월 5박6일 몽골 유목체험	6월 6박8일 스페인 축구관람	7월 7박8일 핀란드 오로라 탐방	8월 8박9일 터키 역사기행	9월 9박11일 쿠바 올드카 여행	10월 10박12일 볼리비아 바리스타 수업	11월 11박13일 오스트리아 클래식 공연	12월 12박13일 인도 명상기행
--------------------------	----------------------------	-----------------------------	--------------------------	--------------------------	---------------------------	-----------------------------	--------------------------	-----------------------------	----------------------------------	----------------------------------	-----------------------------



8박9일 터키 역사기행 추천 일정

터키 역사 기행은 고대 그리스·로마 유적이 많이 있는 터키 서부, 에게해에 걸쳐 있는 도시들을 탐험한다. 이를 위해 이스탄불보다는 이즈미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DAY 1

인천공항 → 이스탄불 공항 → 이즈미르 공항 → 이즈미르 호텔 투숙 뒤 휴식

DAY 2

아고라 → 바자(시장) → 코낙 광장 → 코낙 피에르 쇼핑몰 → 이즈미르 해안가 산책 → 켈티르 공원 → 이즈미르 호텔 투숙 뒤 휴식

DAY 3

이즈미르 오토가르(버스터미널) → 베르가마 오토가르 → 아크로폴리스행 케이블카 정류장 → 아크로폴리스 → 크즐 아울루 → 아스클레피온 → 베르가마 오토가르 → 이즈미르 오토가르 → 이즈미르 호텔 투숙 뒤 휴식

DAY 4

이즈미르 오토가르 → 셀추크 오토가르 → 에페소스 유적 → 아르테미스 신전 → 성모 마리아의 집 → 셀추크 호텔 투숙 뒤 휴식

DAY 5

성모 마리아의 집 → 누가의 무덤 → 쉬린제 → 사도 요한 교회 → 셀추크 오토가르 → 데니즐리 오토가르 → 카라하윳행 돌무쉬 탑승 → 파묵칼레 호텔 투숙 뒤 휴식

DAY 6

라오디케이아 유적 → 파묵칼레 → 야외 온천 → 히에라폴리스 유적 → 파묵칼레 호텔 투숙 뒤 휴식

DAY 7

데니즐리 오토가르 → 이즈미르 오토가르 → 이즈미르 공항 → 이스탄불 호텔 투숙 후 휴식

DAY 8

돌마바흐체 → 톱카프 궁전 → 아야소피아 → 블루 모스크 → 히포드롬 광장 → 예레바탄 지하 저수지 → 이스탄불 공항(기내 1박)

DAY 9

귀국

Travel Information 9

비행시간 약 11시간 30분
시차 한국보다 7시간 느림(서머타임 기간인 3월 마지막 주~10월 마지막 주는 6시간 느림)
화폐 터키리라, TL(1터키리라 ≈ 206.80원)
교통수단 비행기, 버스, 기차, 지하철 등

여행 정보 추천 사이트

- ▶ 터키 관광청(영어) : www.kultur.gov.tr
- ▶ 투르크투어 : www.turktour.org
- ▶ 터키문화관광부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g/goturkey.1004

- 1 이즈미르 시내에 위치한 아고라에는 기둥과 아치 일부가 복원돼 있다
 - 2 베르가마 아크로폴리스 전경으로 경사면을 따라 지어진 원형극장이 놀랍다
 - 3 에페소스 유적지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생활을 만나볼 수 있다
 - 4 에페소스 유적지에 있는 원형극장은 한 번에 2만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 5 석회층 온천 지대인 파묵칼레의 신비로운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 ©터키문화관광부

추천 Point

터키 역사기행의 중심도시, 이즈미르

시작은 이스탄불이 아닌 이즈미르에서 시작하는 편이 좋다. 예게해 지역을 오가는 버스 대부분이 이즈미르를 경유하기 때문에 여러 도시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이즈미르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터키항공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항공권을 구입할 때 이스탄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긴 티켓을 선택하거나, 다구간을 선택한 뒤 이즈미르-이스탄불, 이스탄불-이즈미르 구간을 따로 끊으면 된다. 베르가마와 셀추크 모두 이즈미르 오토가르(버스터미널)에서 버스나 작은 버스(돌무쉬), 렌터카, 택시(시내 이동)를 이용해 개인 여행이 가능하다. 파묵칼레를 제외하고는 이즈미르에서 베르가마와 셀추크 모두 1~2시간 거리에 있으니 이즈미르를 베이스캠프 삼아 당일치기 여행을 해도 좋다.

터키는 역사 공부가 필수다. 주요 관광지에 영어 안내판이 있지만 역사를 잘 모르면 모두 공사장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현지 가이드 투어를 권한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 하층은 돌덩이나 바닥 위 낙석 등이 그 시대로 돌아가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고대 유적지를 돌아보기 위한 준비

터키 고대 유적지는 어디든 넓고 볼 것이 많아 1~3시간 정도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일단 들어서면 화장실이나 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거의 없다. 입장하기 전 화장실 위치를 파악하고 마실 물이나 간식,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양산과 모자 등을 꼭 지참하는 것이 좋다.

현지 1일 투어 추천 사이트

- ① 마이 리얼 트립 www.myrealtrip.com
- ② 갯유어 가이드 www.getyourguide.co.kr
- ③ 줌줌 www.zoomzoomtour.com



관광 Point

① 이즈미르(Izmir) '아고라'

이즈미르는 터키 제3의 도시로 교통의 요지이자 터키 서부 여행의 기점이다. 많은 고대 역사의 흔적들 가운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아고라는 현존하는 이오니아 양식의 아고라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좋다. 그나마 기둥과 아치 일부가 복원됐다.

② 베르가마(Bergama) '아크로폴리스·아스클레피온'

이즈미르 주 북부에 위치한 베르가마는 기원전 그리스인이 건설한 도시 국가 페르가몬의 유적이 있는 도시다. 아크로폴리스, 크즐 아올루, 아스클레피온 등 고대 유적지가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는 로마제국의 황금기에 건설돼 그 모습이 웅장하다. 로마를 대표하는 황제 트라야누스를 위한 신전, 경사면을 따라 지어진 원형극장 등이 볼거리다. 아스클레피온은 치료와 요양을 인류 최초의 종합 의료 시설로 도서관, 원형극장, 샘물, 수면실, 치료동 등이 들어섰다. 이곳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책을 읽고 공연을 보고 샘물에서 물을 마시며 회복했다고 전해진다.

③ 셀추크(Seljuk) '에페소스 유적지'

이즈미르 주 남쪽에 위치한 에페소스는 사도행전과 에베소서 등 수많은 신약성서에 등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고대도시 유적이다. 기원전 7~6세기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건립한 뒤 스파르타, 페르시아, 페르가몬, 로마 등이 이 지역을 지배해 유적지가 즐비하다. 셀수스 도서관, 하드리아누스 신전, 원형극장 등 수많은 볼거리들이 있다. 에페소스의 랜드마크인 셀수스 도서관은 고대 3대 도서관 중 하나며, 원형극장은 무려 한번에 2만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한다.

④ 데니즐리(Denizli) '파묵칼레'

이즈미르 주 동쪽 데니즐리 주에 위치한 파묵칼레는 터키어로 목화(Pamuk), 성(Kale)이라는 뜻을 가진 석회층 온천 지대다. 온천 효과가 뛰어나 로마 황제나 클레오파트라도 이곳의 온천을 즐겼다. 계단식 논처럼 보이는 석회봉이 빙하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단 20곳뿐인 세계복합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유일무이한 풍경을 지녔다. 파묵칼레 언덕 뒤에는 고대도시 히에라폴리스가 있는데 원형극장, 목욕탕, 공동묘지, 교회터 등 다양한 유적이 있다.



3 4



체험 Point

에페소스에서 만나는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생활

에페소스는 기원전에 지어졌으나 놀랍게도 이미 상하수도 시설이 존재했다. 수세식 화장실(공중화장실)도 있다. 개별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지금의 수세식 화장실처럼 앉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고 하수구와 연결돼 있다. 귀족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바리우스 목욕탕은 놀랍게도 냉탕, 온탕, 열탕뿐 아니라 사우나와 화장실까지 갖췄다. 또 트리아누스 분수는 당시 2층 높이로 설계된 이 분수는 하수도와 연결돼 물이 흐르던 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는 바다로 6k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에페소스는 바다로 이어진 항구 도시였다. 그 증거로 조개껍데기를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당시 항구에서 야외 원형극장까지 뻗어 있는 대리석으로 된 아카디우스 도로(아케이드의 유래)가 있는데, 총 길이 530m, 폭 11m에 달한다. 이 길에는 당시 값비싼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있었고 시내 한복판에는 흥등가도 있었다. 흥등가는 손님을 끌기 위해 바닥에 발바닥을 그려 놓아 손님을 자신의 업소로 안내했다.

유적지 여기저기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만날 수 있다. 병원을 나타내는 표지판에는 뱀이 그려져 있는데 뱀은 의학을 관장하는 신 아스클레피온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승리를 관장하는 여신 니케의 조각도 이곳에서 발견된다. 니케는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의 어원이기도 하다. 히드리아누스 신전 아치에는 니케와 메두사도 발견된다.

신비로운 유적지에서 온천을

파묵칼레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족욕을 즐길 수 있다. 단, 바닥에 매우 미끄러워 조심해야 한다. 족욕만으로 아쉽다면 히에라폴리스 내부에 있는 야외 온천에 갈 것을 추천한다. 이곳에는 탄산과 마그네슘, 칼슘, 황산 등의 성분이 풍부하다. 수영장 바닥에는 고대 로마시대의 유적들이 깔려있는데, 수천 년 된 유물 사이에서 온천을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다. 온천을 즐기려면 수영복을 착용해야 하며 대여하는 곳이 없으니 반드시 준비해 간다. 🌿



5

아픔과 희망 공존하는 미지의 땅

철원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글·사진 전부순

강원도 철원을 순우리말로 풀면 '쇠둘레'다.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38선 이북으로
불린 이곳은 한국전쟁 휴전 뒤 수복지구가
됐다. 지금도 철원 산하에는 일제강점기
수탈과 한국전쟁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남북이 대치한 DMZ(비무장지대)는
청정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천혜의 땅으로서
또 하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모순과
호기심이 무거운 장벽에 가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찾아
강원도 철원으로 길을 나선다.





Travel Information 9

주소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금강산로265 소이산 입구 부근

코스

노동당사 - 소이산삼거리 -
지뢰꽃길 - 생태숲길 -
정상갈림길 - 전망대 -
소이산정상 - 정상갈림길 -
소이산삼거리 - 노동당사

*총 4.8km, 2시간 30분 소요

푸른 생명 자라는 지뢰꽃길

한탄강이 굽이쳐 흐르는 철원에는 한여울길(52.4km) 6개 코스가 있다. 그중 2012년에 개통한 5코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은 철책을 곁에 두고 지뢰지대를 걷는 지뢰꽃길(1.3km)과 소이산 생태환경을 살필 수 있는 생태숲길(2.7km), 그리고 철원평야를 내려다보는 봉수대오름길(0.8km)로 구성돼 있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들머리는 등록문화재 제22호인 노동당사다. 해방 직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리면서 1946년 북한이 대남적화전 초기지로 삼아 지은 러시아식 건물이다. 북한은 이곳에서 철원·김화·평강·포천 일대를 관할하며 양민수탈은 물론 수많은 주민을 체포해 고문과 학살을 자행했다. 1994년 8월에 발표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3집,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도 유명해진 노동당사는 폭격으로 남은 뼈대에 수많은 총탄과 포탄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노동당사 앞 길가에는 일제강점기에 세운 옛 철원군 도로원표가 서있고, 각 방향에 맞춰 평강 16.8km, 김화 28.3km, 원산 181.6km, 평양 215.1km, 이천 51.4km 거리가 새겨져 있다.

노동당사 건너편에 있는 나지막한 소이산(362m)은 예전에는 텃밭이 달린 집과 논밭, 학교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 간 사람들

손길이 멈추자 푸르른 생명들이 자라나면서 지금은 천연원시림을 이루고 있다. 길 건너 소이산 삼거리로 내려가 오른쪽 논두렁을 따라 가면 지뢰꽃길 입구, 도로를 직진하면 소이산 전망대로 향하는 봉수대 오름길이다. 길손은 과거 주민들이 대마리 마을을 오가던 논두렁길로 들어섰다. 산기슭 팔각 정자를 지나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군사통제 보호구역 내 지뢰매설 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보이고 '지뢰'라고 쓴 역삼각형 붉은 표지판을 매단 녹색 철책길이 이어진다. 철책 너머 지뢰밭은 원시림 가득한 비밀의 숲이다. 마치 GOP를 걷는 것 같은 지뢰꽃길은 분단된 현실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담아내는 듯하다.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뢰지대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남쪽에 130만 발, 북쪽에 200만 발 등 총 330만 발이 묻혀있고, 민통선 지역 미확인 지뢰지대만도 121km에 달한다. 지뢰 제거에만 490년이 걸린다는 수치도 있으나 철조망 아래에는 여러 색깔의 산수국이 피어있어 길손은 남다른 감흥으로 순간 이곳이 지뢰지대임을 잊는다.

30여분 뒤 도착한 너른 쉼터에는 이 지역 출신 정춘근 시인의 지뢰꽃 시비가 있다. 시인은 '지뢰밭에서 피어난 꽃'을 보았고, 그 '꽃을 꺾으면 일제히 뇌관이 터져 화약 냄새가 날 것 같다'면서 그 꽃들은 '왜 가시 철망에 찢긴 가슴으로 꽃을 피워야 할까'라는 물음도 잊지 않았다.

장대한 철원평야가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

제법 너른 쉼터를 지나면 땅바닥은 온통 질경이 천지다. 여기서 야트막한 언덕배기를 넘어 오르면 산벚나무, 산뽕나무, 산밤나무, 상수리나무와 더불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구상나무, 자작나무, 피나무, 졸작살나무 같은 한국특산종을 따로 심었다. 다양성을 갖춘 나무들이 뿔어내는 피톤치드와 울창한 그늘이 한여름 햇살을 막아 걷는 기쁨은 배가된다. 이런 연유로 소이산 숲은 2008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평화의 숲' 상을 받았다.

중간 중간 마련된 쉼터에는 옛날 빗바랜 사진들이 지역을 설명한다. 저 멀리 연무에 가린 대마리와 백마고지가 아슬라하다. 대마리는 냉전시대 산물로 북한에 대응하면서 대북심리전에도 활용할 요량으로 건설한 전략촌이다. 1968년 제대 군인과 지역 주민을 선발해 마을을 일



3

1
육군 6사단이 소이산 개방에 협의하면서
2012년 마침내 길을 연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은 지뢰지대를 곁에 두고 걷는
이색적인 길이다

2
길에서 만나는 각종 군부대 시설들을 통해
이곳이 최전선지역임을 일깨운다

3
녹색길 일부 구간은 벤치에 안내표지판을
디자인하고, 철원역사를 설명하는 등
방문객에게 편의 제공을 하고 있다. 사진은
온통 절경으로 깔려 있는 풍경이다

4
노동당사는 해방 뒤 북한이 지은
러시아식 건물이다

5
평화마루공원 정상에서 본 철원평야,
질은 연무에 휩싸여 있어 더욱 고즈넉하다

구면서 지뢰폭발로 11명이 죽고 8명이 팔다리를 잃었다. 또한 백마고지는 원래 백마산이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포탄 30만 발을 퍼부은 결과 지형이 백마가 누운 형상으로 변해 얻은 이름이다. 열흘 동안 고지 주인이 24번이나 바뀌면서 국군 3천5백여 명과 중공군 1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격전지로 기록됐다.

다시 길을 옮겨 비어있는 작은 막사와 참호를 지나면서 이곳이 최전방임을 깨닫는 찰나, 소이산 정상으로 이끄는 임도가 나타난다. 고려시대부터 봉수대가 있어 이름도 봉수대오름길이다. 경흥-회령-길주-함흥-영흥-안변에서 받은 봉수를 양주를 거쳐 서울 목멱(남산)으로 외적침입을 알린 경흥선 봉수로였다. 오르막길 끄트머리에 위치한 소이산 전망대는 각 방향마다 주변 지형을 이해하기 쉽도록 투명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철원 전투를 사진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안내실을 지나 6사단을 상징하는 푸른 별이 도색된 정상에 서자 시야가 끝없이 펼쳐진다. 비록 연무에 싸여 위치 가늠이 어려우나 포격으로 산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다는 아이스크림 고지, 남방한계선이자 한반도

녹색지대 DMZ, 궁예가 진산으로 삼은 고암산, 일명 김일성 고지가 저 어디쯤에 있을 터다. 그래서일까. 눈 아래로 펼쳐진 장대한 녹색 철원평야는 오히려 적막과 고즈넉함을 더한다.

원래 철원평야는 '재송평'(裁松平), 즉 왕의 수렵이나 군사훈련을 위해 벌목과 경작이 금지됐던 강무장(講武場)이다. 조선 태종 이방원과 그의 아들 세종과 손자 문종이 자주 찾아와 사냥을 마치면 한탄강 고석정에서 신하들과 지방 관료들에게 잡은 동물과 술을 내어 위무했다. 그런 곳이 1920년대 경원선을 놓고 봉래저수지를 축조하면서 본격 개발되어 철원평야라는 곡창지대로 변모했다. 한국전쟁이 휴전되면서 철원평야를 남쪽에 빼앗긴 김일성이 이를 원통히 여겨 사흘밤낮을 통음하며 울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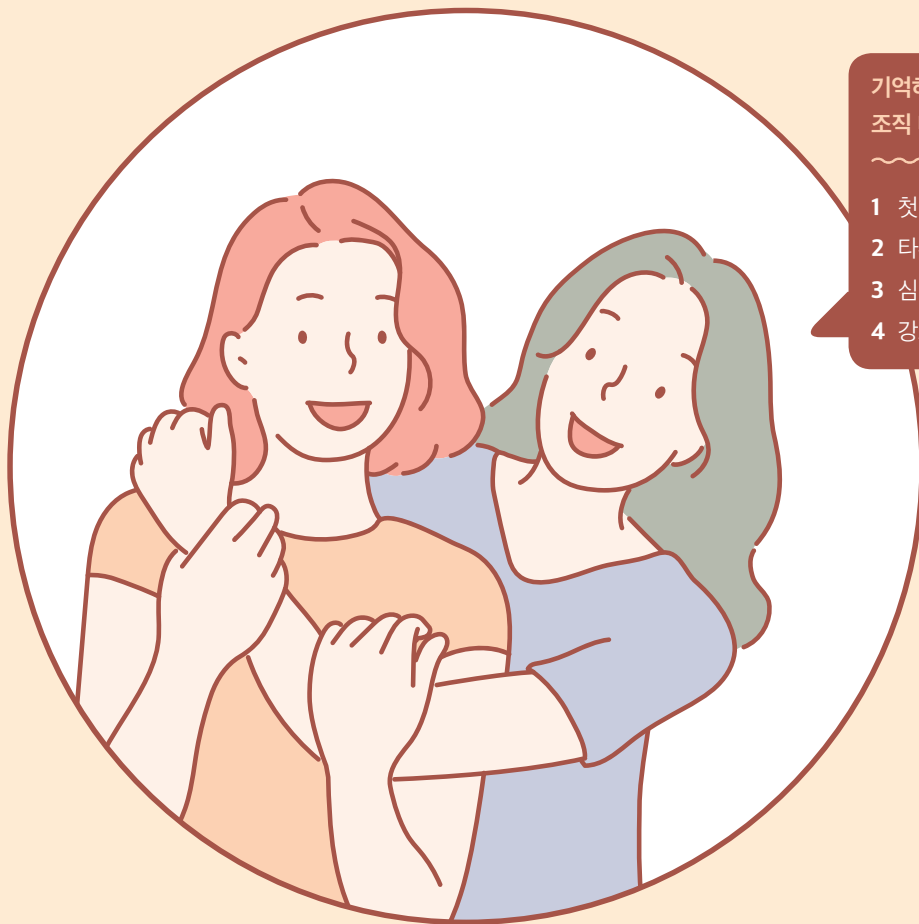
노동당사를 기점으로 논길, 지뢰지대, 숲길과 오솔길을 거쳐 평화마루공원을 찍고 다시 노동당사로 회귀하는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을 거닐며 전쟁을 딛고 일어난 푸르른 생명들을 만나고 그 길에서 다시 희망을 품어본다. 🌿



4



5



기억하세요!

조직 내 포용력 훈련

- 1 첫 단어는 Yes! 긍정의 어투로 대화 열기
- 2 타부서 업무 이해하기
- 3 심리적 안정과 여유로 열등감 대신 자존감 키우기
- 4 강요성 말투를 권유형으로 바꾸기

슬기로운 직장 생활 수칙

휴가 마지막 날 저녁 기분이 설레는 직장인이 있을까? 아니면 매일같이 출근 할 때마다 설레는 직장인이 있을까? 소위 일하기 좋은 기업 (GWP ; Great Work Place)에 선정된 기업 직원들은 상당 부분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런 기업을 만들고 이끌어 가는 리더의 특징 3가지를 꼽으면 겸손과 소통, 신뢰다. 여기에서 겸손이란 단지 자세를 낮추거나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도 충분히 수용하며 경청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키워드로 '초연결'을 강조한다. 이제는 팀워크를 넘어서 협업으로 가야하는 시대적 요구가 턱 밑까지 들이닥쳤다. 스티브 잡스도 "앞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선언했을 만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다. 결국 슬기로운 직장생활의 핵심은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상대방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경청하는 포용력은 조직 내에서 갖춰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 됐다.

초연결 시대의 절대조건

포용력 기르기

포용이 개인은 물론 조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유연하고 설득력 있는 전략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포용을 한 개인이나 집단의 품성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포용은 품성이 아닌 행동의 문제다. 나와 다른 차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이로움을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포용으로 봐야 한다.

글. 민승기(<인성이 경쟁력이다> 저자)

1월
통찰력

2월
창의력

3월
기획력

4월
분석력

5월
협상력

6월
추진력

7월
사고력

8월
포용력

9월
통솔력

10월
단합력

11월
어휘력

12월
표현력



포용의 장벽 없애기

다양한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조직에서 서로 포용하고 협업하기란 만만치 않다. 소위 무개념 직원과 끈대 상사의 갈등으로 조직 문화마저 휘청대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선포했지만 결코 법이나 제도로 근원적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포용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역으로 포용을 방해하는 장벽을 찾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포용을 막는 장벽은 관점의 차이와 공감력 부족이다. 포용은 결코 뒷사람이 아랫사람을 품어야 하는 일방적인 미덕이 아니다. 나이와 계급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는 배려와 행동이다. 공감이란 말의 영어 단어 empathy는 '남의 신발을 신다'란 말에서 유래됐다. 즉,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생각하는 대신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 사람의 의도와 배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 포용력 있는 행동이다.

포용 방해요소 자가진단

- ☐ 조직 내 서열 매기기
- ☐ 강한 연고주의
- ☐ 지나친 주변 의식
- ☐ 권위적 말투
- ☐ 편협한 사고

예시)

'별로 하는 것 없이 쉬워 보이네'
'저 친구는 참 운도 좋군'
'뭘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지?'

포용력 키우는 행동

- ① 여유와 기다림
- ② 경청과 편견 없는 호기심
- ③ 직급·나이 상관없이 먼저 인사
- ④ 권위적 하대 지양
- ⑤ 눈 마주보고 대화

포용력 강화의 4가지 팁

포용력을 갖추는 좋은 방법으로 먼저 첫마디의 힘을 강조하고 싶다. 비록 의견이 달라 당장 반론을 펼치고 싶더라도 '그럴 수도 있군'이라고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동의가 아니다. 일단 듣고 수용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아는 만큼 보이듯 자신의 경험치가 제한적이면 그만큼 포용하기 힘들다. 타부서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 이외의 주제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이나 모임을 통해 낯선 이들과의 교류를 체험하는 등의 호기심을 키우는 것도 포용력을 키우는 훈련이다. 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강조할 때 영어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는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심리적인 안정과 여유가 없으면 사소한 일도 포용이 안 된다. 평소 업무 환경을 정리하고 체크 리스트를 활용해 일에 쫓기지 않는 것, 부족한 결과에 상처받거나 지나치게 반추하지 않는 것, 사소한 일에 대해 너무 배경 파악에 힘을 소모하지 않는 것이 마음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 건강한 자존감이 없으면 열등감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말투 연습도 필요하다. 직선적 표현을 곡선형으로 바꾸는 것이 관계를 좋게 만든다. 지시나 강요성 짙은 말투를 요청이나 권유형으로 바꾸기만 해도 상대방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게 된다. 🌱

포용력 있는 긍정화법 예시

제안한 방향이 상대방과 다를 때 → 격려와 인정의 화법

"방법은 다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군요."

부하직원이 실수했을 때 → 선 부정 후 긍정 화법

"A와 B부분을 좀 더 개선하면 전반적으로 잘 정리된 보고서입니다."

상사의 요청에 타협이 필요할 때 → Yes, But 화법

"네, 말씀하신 자료 수집이 시급해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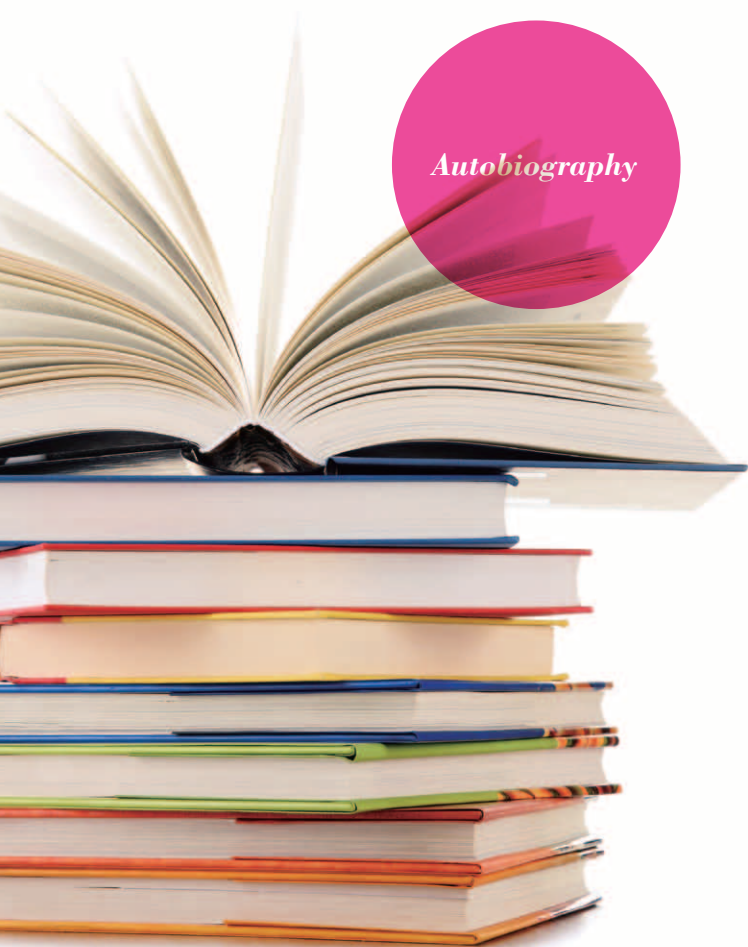
현재 정리 중인 업무 내일까지 마친 뒤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지식투자형] 취미 정보

현대인들은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각자 생활방식과 성향을 고려해 취미를 선택한다.
땀 흘리며 체력을 단련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운동 이상의 치열함으로 두뇌를 자극하는
취미를 즐기는 이들도 있다. 그중 어른들의 지식놀이로 각광받는 활동을 소개한다.

똑 똑 한 즐 거 움



삶의 궤적 담은 한 권 · 자서전 쓰기

글쓰기는 집중력, 창의성은 물론 이해력까지 높여주는 활동이다. 작가처럼 높은 수준의 글이 아니어도 좋다. 개인적인 감상이나 일상을 써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두뇌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

최근 각광받는 자서전 쓰기는 글쓰기 취미를 지속하는 데 효과적인 동기 부여가 된다. 자서전 쓰기 온라인 강좌나 관련 서적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다. 취미는 커녕 막막함과 부담감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인내를 갖고 진행하다보면 자서전 작업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으로 여겨질 것이다.

자서전 쓰기에 앞서 4단계 과정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는 연보 작성으로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의미 그대로 사람이 한평생 살아온 내력이나 어떤 사실을 연대순으로 간략하게 적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글쓰기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메모 형식이어도 충분하다. 두 번째는 키워드 뽑기다. 하숙, 영업사원, 친구, 애주가 등 하나 둘 메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붓물 터지듯 단어들이 쏟아진다. 다음은 '지금의 나'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다. 흔한 자기소개서와 달리 현재의 나는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춰 쓰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많은 소재들을 어떤 순서와 흐름으로 정리할지 고민한다. 기획은 자서전 집필의 이정표와 같다. 자서전 구조를 미리 짜고 각 위치에 맞는 소재를 배치하면 자서전 절반은 완성된 셈이다.

● 도움 되는 책

<안정효의 자서전을 씁시다>

소설가 안정효가 소개하는 자서전 쓰기 가이드북이다. 일대일 강의처럼 자서전의 개요와 구성, 소재 선정 등을 작가의 참신한 안목으로 소개한다.

● 오프라인 강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와 센터에서 4주 과정으로 강좌를 운영, 전문가의 도움을 더해 완성도 높은 자서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50+세대, 예비 50+세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https://50plus.or.kr>



Board game

뇌가 젊어지는 놀이 · 두뇌 게임

보드게임은 게임판 위에 말이나 카드를 놓고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게임을 말한다. 보드게임은 크게 전통 방식을 취하는 카드·도구 활용 클래식 보드게임부터 온라인게임 요소가 가미된 혼합 보드게임으로 분류된다.

그 역사를 되짚어보면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상보다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할 만큼 현재까지 개발된 보드게임 수만 1만여 종에 넘는다. 국내 최초의 보드게임은 1982년 출시된 블루마블이다. 우리나라 보드게임의 전성기를 이끈 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PC, 모바일 게임 등장으로 보드게임 성장은 잠시 주춤했지만 온라인 보드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오프라인으로 즐기는 보드게임도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보드게임은 대부분 놀이방법이 간단하다. 물론 체스, 바둑, 장기 등 고전 보드게임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전략이 무궁무진해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입문 단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얼핏 보면 젊은이들의 놀이문화 같지만 사실 전 연령대를 아우른다. 멘사 셀렉트(Mensa Select) 보드게임은 교육용으로도 활용된다. 상위 2% 지능지수를 가진 전 세계 수재들의 모임 멘사협회가 해마다 5개의 보드 게임을 선정하는데 마니아 중에는 멘사 셀렉트 보드게임만을 공략해 대회를 열기도 한다. 현대인의 생활방식을 반영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도 출시되고 있어 인원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몰입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다.

● 멘사 선정 보드게임

*멘사 셀렉트 보드게임은 미국 멘사 홈페이지(www.us.mensa.org) 내 'Play' 카테고리에서 연도별로 확인 가능하다.

루미큐브 2~4인용 / 만 8세 이상 / 게임시간 60분

멘사가 선정한 전 세계적인 보드게임으로 같은 색의 연속된 숫자 또는 다른 색의 같은 숫자를 내려놓으며 가장 먼저 숫자 타일을 모두 내려놓으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자기 것과 상대 것을 모두 고려하는 심리전과 두뇌싸움이 묘미다.

세트 1~10인용 / 만 6세 이상 / 게임시간 20분

모양·개수·색상 등이 다른 총 81장의 카드로 구성됐다. 12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속성이 모두 같거나 다른 세 장의 카드를 찾아 '세트'를 외치면 점수를 얻는다. <뉴욕타임즈>에서도 매일 새로운 문제를 제공한다.

미래 위한 행복 투자 ·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이란 말 그대로 대중이 함께 만드는 기금이다. 청년 스타트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이 풍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요즈음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눈을 돌린다.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기관이나 소수로부터 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 기금을 마련한다. 대개 일반인들이 투자자로 나서는데 이들에게는 다양한 보상이 주어진다.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금 마련에 동참했다면 기여자 명단에 이름이 기재될 수 있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은 기간과 목적 금액에 다다르지 않으면 기금 마련이 무산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장 반응을 사전에 알 수 있어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이점도 작용한다. 국내의 수많은 크라우드 펀딩 목록을 살펴보다 보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참신한 시도를 알아가는 재미에 흠뻑 빠지게 된다. 펀딩 종류별도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 일정 목표 금액을 넘기면 그때부터 프로젝트가 실행돼 당장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보상이 주어진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이자 등으로 보상이 주어지는데 대표 상품이 P2P 대출이다. 국내에서 8~10% 중금리로 개인 간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이렇듯 개인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다.

●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정보

리워드형 ▶ 텀블벅(tumblbug), 스토리펀딩(storyfunding)

증권형 ▶ 오픈트레이드(opentrade), 인크(yinc)

하이브리드형(리워드형+증권형) ▶ 와디즈(wadiz), 크라우드(crowdy)

대출형 ▶ 테라펀딩(terafunding)



Crowd funding

2019년 이달의 활력평가

8월 탐구영역 [한여름]

이달의 활력평가는 달마다 시의성에 맞는 인문·생활 정보 기반의 퀴즈를 시험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쉬어가는 찰나에 재미와 여유를 더할 퀴즈로 소소한 활력을 충전해 보세요. 정답과 해설은 오른쪽 면에 공개됩니다.

◆ 인문 ◆



- 위 작품은 조선시대 신윤복의 작품 <○○만흥>이다.
여름의 흥을 즐기는 장면으로, '서늘함을 들이다'는 뜻을
지닌 작품명 앞 두 글자를 고르시오.
① 휴양(休養) ② 보양(保養) ③ 피서(避暑) ④ 납량(納涼)
- 아래 지역 대표 축제들 중 계절이 다른 행사를 고르시오.
① 영월 동강축제 ② 화천 산천어축제
③ 울산 워터버블페스티벌 ④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매달 마지막 주 하루를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8월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일까?
① 8월 26일(월) ② 8월 27일(화)
③ 8월 28일(수) ④ 8월 29일(목)

◆◆ 안전 ◆◆

- 휴가철 숲길 트레킹이 인기가 높다. 보기 중 위험한 트레킹
방법은?
① 해지기 1시간 전 마치고 ② 이동 중 음식 섭취 금물
③ 체력이 가능한 한 오래 걷기 ④ 급경사는 지그재그로
- 장시간 물놀이는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저체온이
의심될 때 올바른 행동은?
① 즉시 물 밖으로 이동 ② 젖은 채 마른 담요 감싸기
③ 팔·다리 먼저 따뜻하게 ④ 의식이 흐려도 물 섭취

◆◆◆ 건강 ◆◆◆

- 여름철 잘못된 식품 보관법은? (정답 두 개)
① 육류 표면에 오일 바르기 ② 냉장고 80% 이상 채우기
③ 생선 내장과 물기 제거 뒤 보관 ④ 달걀은 세척해 보관
- 함께 두면 상하기 쉬운 과일·야채가 있다. 에틸렌 가스
때문이다. <보기>와 반드시 분리·보관해야 하는 품목은?
(정답 두 개)

<보기> 사과·복숭아·자두·참외·토마토

- ① 수박 ② 블루베리 ③ 살구 ④ 브로콜리

2019년 이달의 활력평가

정답·해설

1.

④ 납량(納涼)

보기 그림은 신윤복의 작품 <납량만홍>이다. 납량(納涼)은 직역하면 '서늘함을 들이다'는 뜻으로 오늘날 납량특집 등 공포물의 수식어로 활용되지만 본래는 피서(避暑)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는 단어다.

2.

*자료 : 한국관광공사

② 화천 산천어축제

지역별 대표 여름축제로 영월 동강축제(8월 8~10일), 통영한산대첩축제(8월 10~14일), 울산 워터버블페스티벌(8월 17일) 등이 있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해마다 1월 즈음 개최되는 대표적 겨울축제다.

3.

③ 8월 28일(수)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문화재 관람 무료, 전시·공연관람 할인 및 무료 등 이벤트가 진행된다. 시설에 따라 관람시간이 저녁 10시까지 연장 운영되는 곳도 있다. 이들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culture.go.kr)에서 미리 확인 가능하며 8월 문화가 있는 날은 28일(수)이다.

4.

*자료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③ 체력이 가능한 한 오래 걷기

트레킹을 포함해 등산, 물놀이 등 몸을 움직이는 종목에서 필요한 것은 일정한 활동과 휴식 패턴이다. 규칙 없이 움직이면 활동에 대한 신체의 적응속도가 더더 쉽게 피로하고 지치게 된다. 30분 걷고 10분 휴식하는 등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5.

*자료 : 스포츠안전재단

① 즉시 물 밖으로 이동

저체온 증상이 나타나면 젖은 옷을 벗은 뒤 마른 담요나 수건으로 감싸야 한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 따뜻한 물을 사용하거나 따뜻한 패드를 팔·다리 부위에 가져다 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가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 결과적으로는 체온을 더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6.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② 냉장고 80% 이상 채우기

④ 달걀은 세척해 보관

여름철에는 냉장고 공간 30%가량 비워두는 것이 식품 신선도 유지에 좋다. 달걀을 세척하면 표면의 수많은 공기구멍과 얇은 막이 파괴돼 세균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씻지 않고 보관한다.

7.

*자료 : 농촌진흥청

① 수박

④ 브로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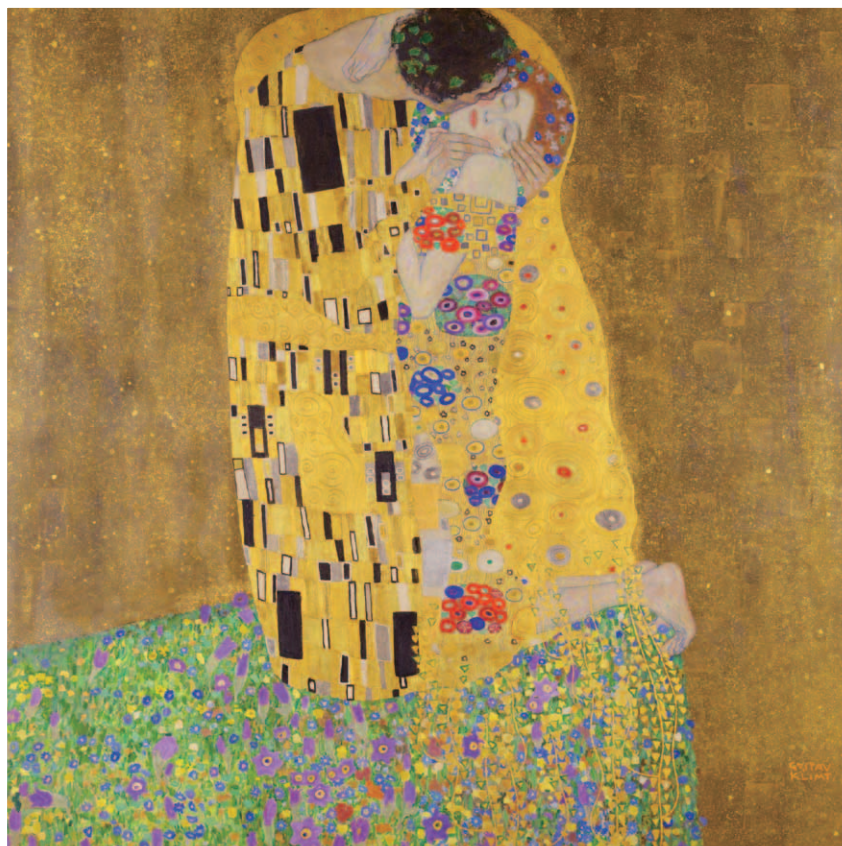
수박과 브로콜리 등 에틸렌 가스에 민감한 품목은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틸렌은 식물조직에서 나와 공기 중에 퍼지면서 식물 노화를 촉진시키는 가스다. 과일·채소 중 에틸렌을 다량으로 생성하는 품목이 혼입될 때는 물기 제거 뒤 신문지 등을 감싸 정리한다.

<에틸렌 다량 생성 품목>

사과·복숭아·자두·무화과·
망고·바나나·멜론·참외·
토마토

<에틸렌 민감 품목>

사과·단감·키위·참외·풋고추·
애호박·오이·가지·수박·콩·
당근·감자·시금치·상추·
양배추·파·부추·브로콜리



불멸의

금빛 로맨스

금박 실험 &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
1908년·캔버스에 금·은·황동과 유채
180cm×180cm·빈 벨베데레 미술관

서기 4세기경부터 화가들은 금의 독특한 성질을 그림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세 화가들은 예수의 탄생이나 성모자 같은 종교화의 배경으로 물감 대신 금을 썼다. 막에 가깝도록 얇게 편 금을 그림의 배경에 오려 붙이고 무른 돌로 살살 문질러 주름을 펴는 이 기법은 '금박(Gold Leaf)'이라고 불린다. 금을 사용한 종교화들은 황금빛 광휘를 내면서 보는 이에게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안겨주곤 했다. 15세기 후반부터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 화가들이 배경에 금박을 입히는 대신 자연을 그리면서 금은 서서히 미술에서 사라졌다.

글.

이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원경(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강사)

금 세공가의 아들

오늘날 오스트리아 빈은 베토벤과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등 걸출한 음악가를 배출한 클래식 도시로 사랑받고 있지만 도시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을 꼽자면 단연 <키스>다. 서로를 꼭 안은 채 막 입 맞추려는 남녀를 묘사한 이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이다.

클림트는 백 년 전, 빈의 영광을 대표하는 화가다. 그는 역사화만 반복해 그리는 보수적인 빈 화가들에게 반기를 든 젊은 예술가의

모임 ‘빈 분리파’를 이끌었고 장식과 평면성이 강조된 새로운 회화를 그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일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사실 빈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이어지는 500년 제국 역사의 수도로서 유럽 그 어느 도시보다 보수적인 분위기였다. 클림트의 그림은 20세기의 도래를 알리는 혁신적인 작품들인 반면 그에게 영감을 준 이는 1500년 전 비잔티움 제국의 모자이크 장인들이었다. <키스>를 비롯한 클림트의 대표작들은 묘하게 고답적이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유로 추정된다.

클림트의 아버지는 보헤미아 지역의 전통적인 금세공 기법을 이어받은 장인이었다. 클림트는 빈 황실공예학교에 입학해 황제의 궁과 극장에서 역사화를 그리며 젊은 시절부터 빈을 대표하는 화가로 부상했다. 하지만 클림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897년 젊은 예술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빈 분리파를 결성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기말의 불안과 변화를 표현하려 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이탈리아 라벤나에 남아 있는 비잔티움 제국의 오래된 모자이크들이었다. 서기 547년에 완공된 라벤나 산 비탈레 성당의 모자이크는 잿은 회벽에 금과 유리, 각종 색 알갱이들을 촘촘하게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아버지를 통해 금을 다루는 법을 이미 배운 클림트는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 모자이크들을 보며 영감을 얻었다.

금으로 완성한 걸작

금은 여러모로 특별한 속성의 금속이다. 녹이 슬거나 변하지 않을뿐더러 거의 무한정에 가깝게 늘어나거나 얇게 펴 수 있는 성질을 가졌다. 금 1g으로 3km 이상의 실을 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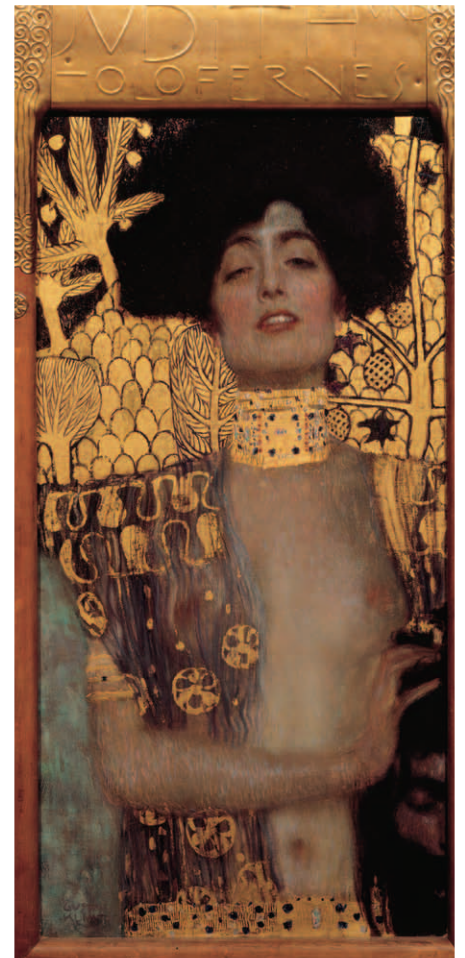
수 있고 가로 세로가 70cm인 정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성질 덕분에 금은 중세 이래 그림 재료로 꾸준히 사용됐다.

클림트가 <키스>를 그린 1908년, 영국에서는 금을 활용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맨체스터대 물리학과 교수인 리더퍼드가 금박 표적에 알파 입자(헬륨 원자핵)를 발사하는 실험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훗날 이 실험에 대해 “휴지를 향해 대포를 발사했는데 대포알이 튕겨 나온 것 같은 결과였다”고 회상하며 이를 토대로 원자핵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개척했다.

분야는 다르지만 클림트는 이미 1901년 완성한 <유디트> 작품에 처음 금을 활용하면서 금빛 전성기를 열었다. 34m 길이의 대형 띠벽화 <베토벤 프리즈>도 금박 기법을 적용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프레스코로 제작한 이 벽화는 금과 작은 유리 조각들이 촘촘히 붙여있는데 과거 비잔티움 제국의 모자이크 장인들이 썼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클림트의 수많은 작품 중 <키스>는 그의 황금시대 절정을 알리는 걸작이다. 그림은 꽃들이 만발한 절벽 위에 무릎 꿇은 두 남녀가 막 입을 맞추려는 순간을 담고 있다. 클림트는 남녀의 옷에 황금을 얇게 퍼서 발랐고 부분적으로 금색 물감과 은, 백금, 납도 사용했다. 황금빛 아우라가 남자의 목덜미 부분부터 여자의 몸 전체를 감싸면서 중세의 성화같은 느낌을 준다. 그림 속의 두 남녀에 대해 클림트는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클림트 본인과 그의 연인 에밀리 플뢰게였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상징적인 남녀의 모습이라 해도 클림트는 찬란한 황금빛으로 연인의 불멸의 사랑을 완성했다. 🌻

구스타프 클림트 <유디트>
1901년 캔버스에 금과 유채
84cm×42cm 빈 벨베데레 미술관





투명성의 가치는 목표 아닌 여정입니다

2019 대한민국 회계대상 대상 수상

우리회사가 7월 2일 열린 ‘대한민국 회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회계대상은 성실한 외부감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기업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제정됐다. 회계법인들의 추천으로 외부감사법 대상 10여 곳이 후보에 오른 가운데 대상을 포함해 총 4개 기업이 최종 수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 외부 감사인 선정, 감사 투입 시간, 회사 내부감사기구 운영 등을 심사해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우리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실질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회계 분야의 조기경보시스템(EWS), 세계 최고 수준의 전사리스크관리(ERM) 등을 구축해 회계감사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수상 소감을 통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회계 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임직원들에게 공로를 돌렸다. 또한 우리회사가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유지를 위해 견지하고 있는 이사회의 균형잡인 구성, 효과적인 감독 그리고 경영진과의 균형과 견제 등 노력을 소개하고, 사외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 감사 활동을 감독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수상을 원동력 삼아 기업 활동의 목표가 아닌 여정으로서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굳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전하는 청춘을 응원합니다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지원

우리회사가 7월 12일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열고 함께일하는재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했다.

이 후원 프로그램은 우리회사가 지난해 착수한 것으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와 푸드트럭 활성화를 도와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푸드트럭은 문화공연과 결합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 축제에도 도입이 확대되면서 청년창업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후원금은 수도권 20개 팀과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20개 팀 등 총 40개 팀에 각 200만 원 상당 주유상품권으로 지원됐다. 앞서 우리

회사는 함께일하는재단을 통해 만 39세 미만의 전국 푸드트럭 창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고 서류와 현장 심사로 최종 수혜대상을 선발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적은 자본금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매진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꿈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S-OIL NEWS

AUGUST 2019

임직원 자녀 비전투어

온산공장 임직원 자녀 대상의 비전투어가 7월 31일부터 총 2차에 걸쳐 시행됐다. 지난 2008년 도입한 비전투어는 방학을 맞이한 직원 자녀들에게 다양한 견학 기회를 제공해 한층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도록 동기를 불어넣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투어에는 차수별 2박3일 일정에 따라 임직원 자녀 총 50명이 참가했다.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헌정기념관, 서대문형무소를 견학하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방문해 미래 꿈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미디어 아트와 미술 드로잉을 결합한 공연 관람,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또래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유익한 사고를 단련했다.



스마일투게더 캠페인 연계 웹드라마 <사회인> 방영

우리회사가 스마일투게더 캠페인의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웹드라마 <사회인>과 연계한 간접광고(PPL)를 시행했다. 우리회사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새로운 경향을 과감하게 수용해 웹드라마에 참여했다. 총 10화 분량의 드라마 영상은 7월 16일부터 매주 화·금요일 유튜브를 통해 독점 방영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스마일투게더 캠페인은 19일 공개된 제3화에 전면 등장한다. 계속되는 취업 실패 속에서도 성실히 우리 주유소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시은'이 스마일투게더 캠페인에 공감한 주유 고객과 밝은 인사를 나누고 취업에 재도전할 용기를 얻는다. 우리회사가 지난해부터 전국 계열주유소 현장에서 펼치는 스마일투게더 캠페인은 고객과 주유 직원이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힘을 불어넣고 위로하자는 공익적인 메시지를 골자로 한다.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7080 추억의 고고장>

여름 절정을 지나는 시점에 시원한 무대가 열렸다. 7월 31일 저녁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7080 추억의 고고장>이다.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Retro)와 새로움(New)을 결합한 신조어 '뉴트로'의 최근 열풍 경향에 맞는 공연이다. 관객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신나게 어우러질 수 있는 디스코, 댄스 음악 속에 환호성으로 무더위를 날렸다.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우리회사가 2011년 6월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마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고자 시작한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이다. 월 1회 사옥을 개방해 국악·오케스트라·밴드와 인형극·마술 쇼·퓨전 퍼포먼스·코미디 등 다채로운 공연을 열고, 지역 주민에게 무료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푸른 내일의 약속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캠프 후기



제10기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발대식이 7월 3일 본사에서 개최됐다. 생물 관련 전공자뿐 아니라 생태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40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지킴이단은 발대식을 마친 뒤 영월, 화천, 철원 등지에서 캠프에 참가했다. 2박3일 동안 연구기관을 방문해 천연기념물 생태 조사, 서식지 정화 활동 등을 펼치고 전문가의 강연을 들었다. 



강렬한 2박3일의 감동!

글. 김주영(전북대 수의학과)

평소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아 관련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에스-오일의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활동은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천연기념물에 대한 배경지식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2박3일의 캠프는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180도 바꿔놓았다. 특히 여러 박물관과 체험관 관람은 기대 이상으로 알차고 유익했다. 민물고기 체험, 새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들과 종 복원사업, 비무장지대 두루미 보호사업 같은 강의들도 새롭고 흥미로웠다. 평소 전혀 관심이 없던 민물고기도 이제는 알아가고 싶은 분야가 됐다. 직접 고기를 잡아 어떤 종들이 우리 하천에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민물고기가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새삼 발견했다. 주옥같은 강의들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종 복원사업 강의를 들었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밖에도 수달,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들의 실제 흔적들을 찾고 관찰한 활동은 가장 현장감 넘치는 체험이었다. TV나 인터넷에서만 접할 수 있던 야생동물들이 실제 우리 주위에서 함께 숨 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일정상 장수하늘소와 여름치는 볼 수 없었지만 그 아쉬움이 오히려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활동을 계속 이어가야 할 동기로 작용했다.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이 10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박3일에 그치는 것이 아닌 10년, 20년 그 이상 천연기념물 지킴이단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갖고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젊음 드리는 오락시간

HYC공장봉사단 복지관 어르신 동반 레크리에이션

글. 피준호(탈향1과)



7월 6일 진행된 HYC공장봉사단 활동 현장에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동참해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어르신들과 일대일로 진행한 레크리에이션은 오전부터 시작됐다. 강사의 율동에 따라 체조로 몸을 어느 정도 풀고 난 뒤 어르신들과 봉사자가 짝을 이뤄 청팀과 홍팀으로 편을 나뉘 게임을 진행했다. 각 팀장은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맡아 더욱 분위기를 돋웠다.

첫 게임은 막대기로 풍선을 묶겨 반환점을 돌아오는 프로그램이다. 봉사자가 풍선을 불고 묶는 것이 서툴러 상대방에 승부를 내졌지만 어르신이 오히려 저도 괜찮다면 봉사자를 다독였다. 두 번째 경기는 사탕저축게임이다. 가위바위보로 사탕을 많이 가져오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인데 어르신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이어진 율동 게임까지 마친 뒤 우리는 잠시 간식을 먹으며 휴식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전의를 불태운 양 팀은 대망의 컵 높게 쌓기 게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전 인원이 종이컵 네 줄로 높게 쌓는 게임인데 청팀은 미적 감각까지 발휘해 상대팀마저 엄지를 치켜세웠다.

3시간이 훌쩍 지나갈 만큼 흥미로운 레크리에이션을 모두 마친 뒤 우리는 어르신들과 근처 식당에서 꿀맛 같은 점심을 함께했다. 벌써 추억이 된 이날의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각자의 소감을 공유했다. 어르신들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준 봉사자들에게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건넸다. 우리 봉사자들이야말로 더없이 유쾌하고 값진 하루였다. 이날 함께 땀 흘리며 동참한 울산대학교 학생들과 HYC공장봉사단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





07.30

방주완 부사장(감사본부) 빙모상

보직변경

07.29

이길우·서대환·김도영(계장.정유·유허공장-Safety Group Safety Foreman)·심우화·
진호건(계장.HYC공장-Safety Group Safety Foreman)·문대근(과장.FCC1공장-Safety Group
Safety Foreman)·김우찬(계장. FCC1공장-Safety Group Safety Foreman)·김선현·
김성환(계장.FCC2공장-Safety Group Safety Foreman)→
정유생산본부(Safety Group) Safety Foreman

최재수(계장.정유·유허공장-Safety Group)·정진호(계장.FCC2공장-Safety Group)·이정욱·
전명환·이재현·노진동(계장.품질관리팀)·어교선·이택(주임.품질관리팀)→
정유생산본부(Safety Group)

박정규(과장.아로마틱공장-Safety Group Safety Foreman)·김충익(계장.아로마틱공
장-Safety Group Safety Foreman)·김계철·조영수(계장.올레핀공장-Safety Group Safety
Foreman)·류강희·고병재·박동욱(계장.송유공장-Safety Group Safety Foreman)→
화학생산본부(Safety Group) Safety Foreman

박평수(계장.아로마틱공장-Safety Group)·박기철(과장.올레핀공장-Safety Group)·
이동석(계장.송유공장-Safety Group)·최승필·안장호(계장.품질관리팀)·
하승중(대리.품질관리팀)→ 화학생산본부(Safety Group)

배재우·김수환·신원엽·진형우(계장.품질관리팀)→안전대응팀

박연호(운전원.품질관리팀)→정유생산부 정유1과

이성범(운전원.품질관리팀)→HYC부 HYC과

정수빈(운전원.품질관리팀)→HYC부 VDU과

신철호(주임.품질관리팀)→FCC1부 MHC과

박민재(운전원.품질관리팀)→탈황2부 유황2과

정성훈(운전원.품질관리팀)→FCC2부 FCC2과

홍성찬(운전원.품질관리팀)→FCC2부 ERU과

08.01

유준기(3급.정유Heavy제품팀)→동경지사

정년퇴직

07.31 이원규(2급.LPG팀)

퇴직

07.12 최준명(운전원.FCC2부 ERU과)

07.22 설정희(2급.소매관리팀)

07.25 신민우(3급.기계기술팀)

07.26 우소원(4급.기술교육팀)

07.31 박희선(4급.동경지사)

결혼

08.03 최혜정(안전혁신팀)

08.10 김창식(품질관리팀) 딸

부음

07.08 이재완(동부네트워크관리팀) 빙모

07.13 박승수(부산지사) 부친

07.14 서호경(법인영업팀) 빙부

07.16 박승규(VDU과) 외조모

07.19 정주현(기계3과) 빙부

07.20 구본성(검사진단팀) 부친

07.21 김경호(공정자동화팀) 부친
정연태(관리회계팀) 빙부

07.28 방성환(품질관리팀) 빙모

07.30 이재규(세무팀) 부친

08.01 모친

김세형(인천저유소) 모친

08.02 김연호(ERU과) 외조모

08.04 이한우(동력1과) 모친

08.03 강영미(강북지사) 모친

정환섭(강릉지사) 빙모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RUC·ODC 준공 기념식> 찬란한 오늘
프로젝트 성공을 계기로 우리회사의 이름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조영식(계기3과)



<RUC·ODC 준공 기념식> 약속, 미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져요.
정영길(탈황1과)



<신임 CEO>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 CEO 취임
새로운 리더와 함께 에쓰-오일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안성찬(계기1과)



<고전 속 핵심가치> 협력 - 일심일덕(一心一德)
지금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발휘해야 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호(총무보안팀)



<우수 협력업체> 코리아인더스트리·지우시스텍
회사가 관계하는 타 기업체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윤원경(인력개발팀)



<꽃청춘 수학여행> 핀란드 오로라 탐방
내 인생 버킷리스트에 있는 '오로라 탐방'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현환(유황1과)



<성장달라! 사고력 기르기
회사 생활을 더 잘 해나가는 데 유용한 정보입니다.
전덕건(FCC2과)



<캔버스 연구실>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테라스'
영화로 예술과 과학의 연관성을 살피는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이수연(대외업무팀)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총 다섯 군데)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일상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나 잘못된 우리말 표현을 올바르게 써주세요.

01

그 직원은 '곤조'가 있으니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① 체면 ② 고집 ③ 능력

02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단도리' 잘 하세요.

① 마무리 ② 작업 ③ 채비(준비)

7월호 퀴즈 정답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지난호
퀴즈 당첨자

블루투스스피커

박은호(윤활생산2과) • 이영기(FCC2과) • 신우승(기계2과) •
이인화(영천저유소 광동일 사우 가족)

휴대폰보조배터리

안혁(HYC과) • 이재성(아로마틱생산2과) •
유혜민(계기1과 유태원 사우 가족) • 최호석(건설팀)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01 그 업무는 제가 ① 할게요. ② 할게요.
→ 그 업무는 제가 '할게요'.

☞ 할게, 갈게, 알려줄게 등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라 '~ㄹ게'로 적고 '~ㄹ' 뒤에 연결되는 자음은 된소리 '~ㄹㄹ게'로 발음한다.

02 이번 사안은 ① 난이도 ② 난도가 높군요.
→ 이번 사안은 '난도'가 높군요.

☞ '난도(難度)'는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하며, '난이도(難易度)'는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다. 따라서 '난도가 높다'는 가능하지만 '난이도가 높다'는 어법상 틀린 표현이다. 난이도는 뒤에 조 정하다와 같이 쓰인다.



올해 사보 표지는 스마트워크(Smart Work) 제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스-오일 리더의 일하는 방식(S-OIL leaders' way of working) 캠페인의
세부 항목들을 한 컷 그림으로 구성해 채워갑니다.